

엘런 "연준, 추가 금리인상 불필요" 2

對中 수출 '역주행'... '리오프닝' 효과 안갯속 8

코스피(14일 전주 대비) 2571.49 (+81.08P)  
코스닥 903.84 (+23.77P)  
환율(달러당 원화) 1298.90 (-17.80원)  
금리(국고채 3년물) 3.215% (-0.025%p)

## 거짓말하는 AI... "인간 집단지성 못 넘을 것"

### 스페셜 리포트

<챗GPT 사용지침>

- ④ 챗GPT가 연 판도라 상자
- ⑤ "급히 먹다 체할라" 시장 종속될
- ⑥ 챗GPT 활용방안 어디까지

"결국, 인간 집단의 능력을 추월하는 AI모델의 등장은 가능치 않다."

인간의 언어를 구사하는 컴퓨터 챗GPT(자동 회귀 언어모델)의 등장으로 AI(인공지능) 열풍이 전 세계를 덮친 상황에서 그 '한계'를 진단하는 전문가 예측에 시선이 집중된다. 챗GPT라는 새로운 AI를 바라보는 현재 우리들의 시선이 과장됐다는 분석이지만, 분명한 것은 생성 AI 등장에 인류는 '충격'에 휩싸였다는 점이다. 글, 사진, 음악, 영상 등을 바로 만들어주는 생성 AI 등장으로 인간의 사무공간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 관련기사 3면

챗GPT의 장점은 명확하다. AI가 스스로 학습해 이용자의 질문에 완벽한 답변을 내놓는다. 학습된 데이터를 통해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단기간에 사람보다 완벽한 답을 내는 것이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단기간에 일궈낸 성과는 아니다. 챗GPT 기술은 2017년 구글에서 어텐션(Attention) 메커니즘을 발표한 이후 구글과 MS, 메타 등 글로벌 AI기술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오랜 시간 집중적인 투자를 진행한 결과물이다. 성원용 서울대 전기·전자공학부 명예교수는 "챗GPT의 혁신은 인공지능명 모델이 커지면서 복잡한 언어 등 다양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챗GPT와 관련한 한계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당장 '기업 기밀' 유출을 우려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규제 의 뒀을 놓기 시작했다. 부작용을 우려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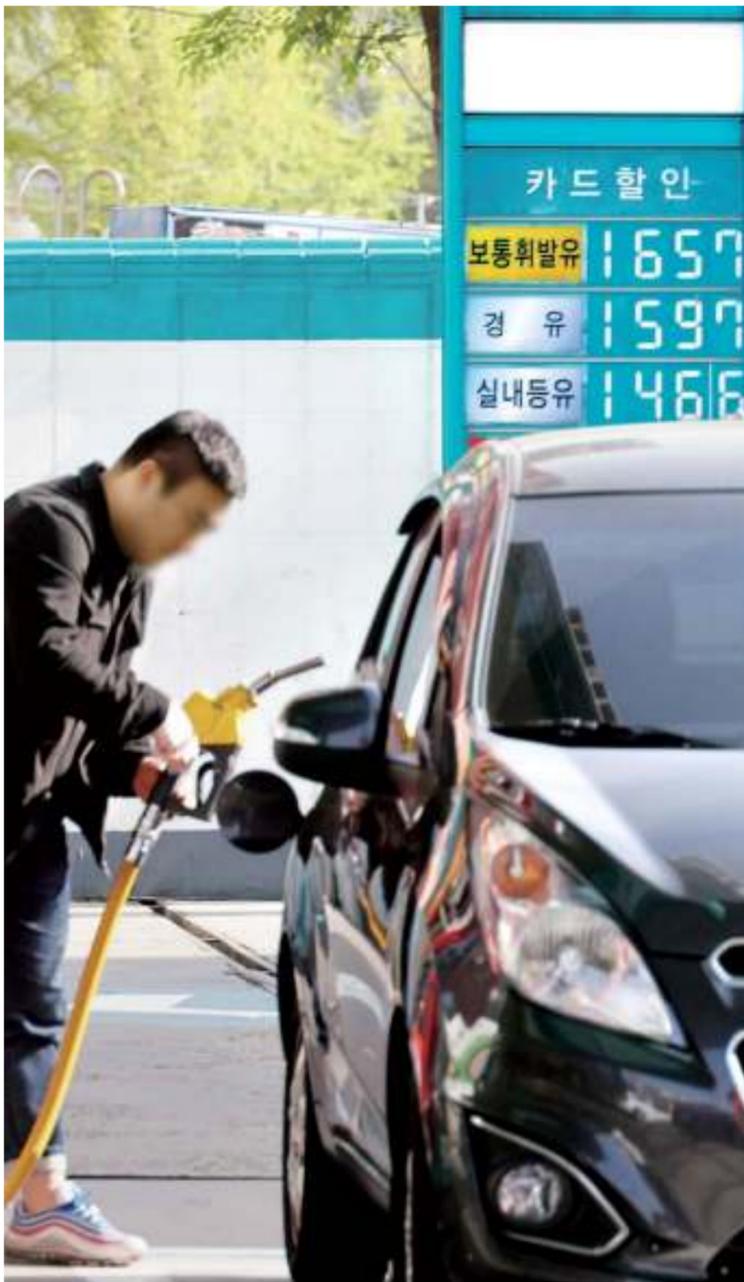
허위정보, 사실처럼 인식해 답변 기밀유출 우려 글로벌 규제 나서

인공지능 한계 진단한 전문가들 "AI, 단순지능 인간보다 높지만 윤리·가치관 등 사회문제 우려"

개발을 잠시 멈추자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아이러니하게도 '모르는 것이 없다는 점'이다. 잘못된 답을 정답이라고 인식하고 대답할 가능성이 있다. 잘못된 정보를 거르지 못하고 이를 주장하기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서 오답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무엇보다 챗GPT에 대한 과도한 낙관론 뒤에 사회적 손실과 회의감이 반복될 것이라 진단도 주목된다. 이현규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인공지능사업단장은 "AI로 구현하는데 어려운 것은 인간미, 상식 개념,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이나 정서와 같은 미묘한 변화가 발생하는 상황 등 여러 가지가 있다"며 "기술이 인간을 넘어서는 걸 특이점이라 하는데, 현재 AI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학습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홍충선 경희대 컴퓨터공학부 교수는 "인간의 인지능력을 추월하는 AI가 등장하기는 어렵지만, 통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측면에서는 개별 인간보다는 AI모델이 우수하다"며 "하지만 결국 인간 집단의 능력을 추월하는 AI모델의 등장은 가능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신사업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인공지능연구센터장은 "인간의 평균 효율성을 AI가 넘어설 것"이라며 "기술의 활용 과정에서 사회문제화되지 않으려면 인간보다 높은 기준치의 윤리와 가치관, 교감성을 AI가 확립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산유국 감소에 휘발유·경유 '동반상승'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이 동반 상승했다. 주요 산유국의 감소 조치로 휘발유 가격은 2주 연속 올랐다. 1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4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30.2원 오른 리터(L)당 1631.1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13.5원 상승한 리터당 1534.3원을 나타냈다. 이날 경기도의 한 주유소에 유가정보 안내판이 게시돼 있다. ▶ 관련기사 4면  
고이관 기자 photoeran@

### 韓日 재무장관 회담 7년 만에 공식 재개

한일 재무장관 회담이 7년 만에 다시 열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스텔스순이치 일본 재무상을 만나 회담 재개에 합의했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협력의) 큰 물꼬를 댔으니 분야별로 정부 기관 간 협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경제·금융 분야에서 당연히 일본 재무성과 협력 관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봐 오늘 일본 재무상을 만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 초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 때 일본 재무상이 참석한다"며 "그때 한일 재무장관 양자 공식 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일 재

### 내달 초 인천 송도서 개최 추 "경제·금융 협력 확대"

무장관 회담은 한국 기재부장관과 일본 재무상 등 재무당국 수장이 참석해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채널이다. 2006년 시작돼 이어져 오다가 2016년 8월 유일 호 당시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만난 것을 마지막으로 7년 가까이 중단됐다. 2017년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얼어붙은 영향을 받았다. 최근 양국이 관계 정상화에 나서며 분야별 협력을 늘리기로 해 양국 재무당국 회담도 재개되는 것으로 보인다.

추 부총리는 "이번 회담이 첫발을 내딛는 것이고, 회담에서 양국 간 협력 확대를 어떤 식으로 해나갈지에 관한 내용이 오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추경호(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스텔스순이치 일본 재무상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 기획재정부

## 脫원전 vs 親원전... 둘로 갈라진 유럽연합

獨, 안전사고 우려 마지막 3기 폐쇄 英·佛, 에너지 안보 차원 추가건설 EU 27개국 중 13개국서 가동 양분

유럽이 원자력발전소를 놓고 분열하고 있다. 독일은 안전을 이유로 원전을 전부 폐쇄했지만, 프랑스와 영국은 에너지 안보를 이유로 추가 건설을 예고했다. 그러자 다른 유럽연합(EU) 회원국들도 반으로 나뉘어 팽팽히 맞서기 시작했다.

1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원자력발전소 세 곳을 자정을 기점으로 폐쇄하면서 원전 시대의 막을 내렸다.

이 원전들은 애초 지난해 12월 폐쇄될 예정이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

너지 비용이 치솟은 탓에 운영 기간이 연장됐다. 이후 독일은 예상보다 따뜻한 겨울과 천연가스 매입, 노후화로 인해 예비 전력원으로 분류됐던 화력발전소의 재가동 등으로 에너지 위기를 모면했다.

독일에선 1980년대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이슈가 부상했다. 의회에서 원전 가동을 놓고 수차례 논쟁이 오갔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지면서 논의는 폐쇄로 기울었다. 당시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후쿠시마 사고 발생 사흘 만에 독일에 남은 17개 원전을 2022년까지 모두 폐쇄하겠다고 약속했고 후임인 올라프 숄츠 총리가 짧은 가동 기간 연장 끝에 원전 시대에 종지부를 찍었다.

반면 영국과 프랑스는 에너지안보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프랑스는 2035년

까지 원전 6기를 건설하고 앞으로도 계속 원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미 9기를 가동 중인 영국은 2050년까지 최대 8기를 추가 건설하기로 했다. 양국은 지난해 원전 파트너십 계약도 맺었다. 당시 리시 수낙 영국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우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같은 인물들이 다시는 우리 에너지 안보를 무기화하지 못하

도록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U 회원국들도 원전 운영과 폐쇄를 놓고 양분됐다. EU는 지난해 기준 27개 회원국 가운데 13개국이 원전을 가동하고 있어 약 5대 5 비율을 보인다. 현재 폴란드와 체코 등이 친원전파, 덴마크와 네덜란드, 스페인 등이 반대파로 갈린다. 폴란드는 2026년 자국 첫 원전 건설을 시작할 계획이다. 독일과 스페인 등 EU 7개국은 지난해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에서 원전을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는 서신을 EU 의장국인 스웨덴에 보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이투데이 ESG포럼 2023  
민간 ESG 생태계 조성방안

주최 이투데이  
후원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부, 금융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문의 이투데이 사업부 김영준 팀장(02-799-2683)

4월 19일(수) 14:00~17:00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지하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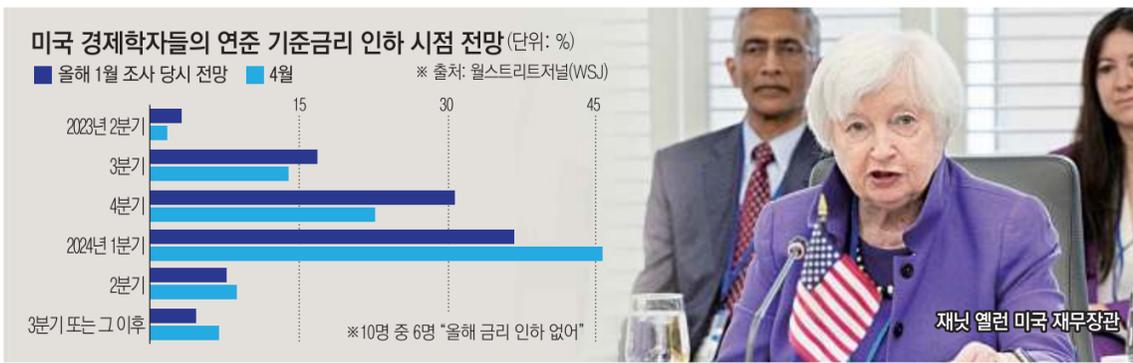
# 엘런 “은행 위기로 대출감소… 추가 금리인상 필요 없다”

## 美, 엇갈리는 ‘피봇’ 전망

대출 위축, 금리인상과 같은 효과 “연착륙 가능” 여전히 낙관론 피력 경제학자들 “인플레이 억제 회의적”

재닛 엘런 미국 재무장관이 “추가 기준금리 인상은 불필요할 것”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은행 대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5월 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인플레이션 장기화와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엘런 장관은 15일(현지시간) CNN과의 인터뷰에서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시작된 은행 위기 이후 은행들이 더 신중해지면서 대출을 더 줄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는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을 불필요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들의 대출 감소는 연준이 필요로 하



재닛 엘런 미국 재무장관

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대체할 수 있는 신용 제한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은행들이 대출을 조이면 시장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어서 추가 금리 인상이 불필요하게 됐다는 이야기다.

엘런 장관은 미국 경제나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해서는 여전히 낙관론을 피력했다. 그는 “은행권의 시스템적 위기는 정부의 정책적 대응으로 안정화됐다”면서 “지난달 발생한 은행권 위기가 경제 전망을 바꿀 정도로 극적이지는 않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인플레이션을 낮추면서도 강

한 노동시장을 유지하는 것은 양립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한다”며 “이미 지난주 발표된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세 둔화가 이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엘런 장관의 낙관론과 달리 미국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론이 짙어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발표한 자체 설문조사에서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CPI 상승률이 올해 말 3.5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해당 조사는 62명의 경제학자를 대상

으로 이달 7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됐다.

이는 1월 같은 조사에 도출된 전망치인 3.1%보다 높아진 것이다. 그만큼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설문조사에서 경제학자 대부분은 미국 기준금리 전망과 관련해 6월 말 금리 중간값을 5.125%로 예상했다. 연준이 5월이나 6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뜻이다. 현재 미국 기준 금리는 연 4.75~5.00%로 그 중간값은 4.9%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연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경제학자 10명 중 6명은 “올해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다수 경제학자가 연내 금리 인하 조치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던 1월과는 대조적인 분위기라고 WSJ는 전했다. 조 브루스엘라스 RSM 미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소은행의 어려움으로 인한 재정적 스트레스가 더 발생하지 않는 한 연내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기조 장기화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1월과 마찬가지로 향후 1년 안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61%로 점쳤다. 이들은 올해 3분기 경기침체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경제학자 대부분은 은행 위기가 경기침체 위험을 가중하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응답자 중 58%는 “은행 위기를 대부분 피했다”고 말했다. “더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한 응답자는 42%였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 경제 기록일지

# 10년간 1844만개… SPC 파riba게뜨 카스텔라, 국내 최다 판매 인증



10년간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카스텔라는 무엇일까. SPC그룹 파riba게뜨의 스테디셀러 제품인 ‘명가명품 우리별꽃 카스텔라’가 KRI 한국기록원으로 부터 지난달 22일 ‘10년간 국내 최다 판매 카스텔라’로 기록을 공식 인증 받았다.

명가명품 우리별꽃 카스텔라는 2012년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10년간 1843만9498개 판매됐다. 이 제품은 1988년 출시 후 지금까지 꾸준한 소비자들로부터 사랑받은 스테디셀러

로 신선한 목초란(木樨卵)과 황금빛 국내산 꿀을 사용했다. 이 제품은 속까지 촉촉함을 채우기 위해 반죽이 숨 쉬는 소나무틀에 구워 부드러운 식감과 달콤한 풍미를 살린 것이 특징이다.

파riba게뜨는 인증을 받기 위해 판매 증빙 자료와 시장조사 보고서, 유통 관련 문서, 미디어 기록 공시 자료, 제3자 확인서 등을 한국기록원에 제출했다. 이어 한국기록원의 검토와 심사를 거쳐 한국기록원 공식 최고 기록으로 인증을 받았다. 1988년에 출시한 뒤

스테디셀러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제품으로 실제 판매량은 1840만 개보다 훨씬 더 많다.

파riba게뜨 관계자는 “끊임없는 혁신과 연구개발 노력의 결과 ‘10년간 국내 최다 판매 카스텔라’ 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 미국 세계기록위원회(WRC: World Record Committee), 유럽연합(EU) 등 세계적으로 저명한 해외 기록 인증 전문기관에도 인증 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성원에 힘입어 파riba게뜨

는 4일부터 6일까지 대표 스테디셀러 중 하나인 ‘명가명품 우리별꽃 카스텔라’ 선착순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파riba게뜨는 이외에도 △제주산 녹차맛을 곁들여 만든 말차의 진한 풍미가 담긴 명가명품 제주말차 카스텔라 △제주의 추운 겨울을 이겨낸 상큼 달콤한 천혜향의 향긋함을 담은 명가명품 제주 천혜향 카스텔라 등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혔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 2024년도 가루쌀 생산단지 모집

- '23년 5월 31일 까지 시군에 신청-

### 모집규모

150개소 내외(1만ha)

###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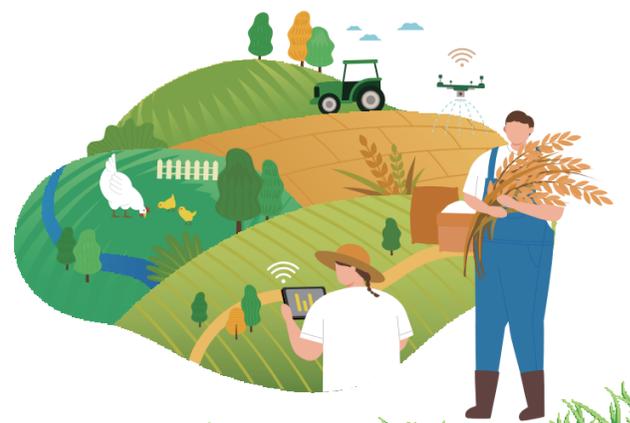
농협, 농업법인, 협동조합  
- 식량작물공동경영체: '24년 가루쌀 재배 30ha 이상  
- 일반 생산단지: '24년도 가루쌀 재배 30ha 이상  
\* 벼 재배면적이 2천ha 미만인 시군은 20ha 이상

### 설명회

'23.4.14.(금) 14:00 \_ aT센터 5층 그랜드홀(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23.4.17.(월) 14:00 \_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66)  
'23.4.19.(수) 14:00 \_ 전북도청 공연장(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23.4.24.(월) 14:00 \_ 경북도청 본관 1층 다목적홀(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지원내용

- ① 맞춤형 생산기술지원
- ② 교육·컨설팅지원(3천만원, 자부담 10%)
- ③ 시설·장비 지원(5억원 이내, 자부담 10%)
- ④ 전략작물직불금지급(ha 당 100만원, 밀·조사료와 이모작시 250만원 지급)
- ⑤ 생산량 전량 정부 매입
- ⑥ 가루쌀(바로미2) 종자 공급(유상)



# “산업계 ‘성배’인 챗GPT… 저작권 침해 ‘독배’ 도사려”

## 챗GPT 활용과 한계는

인류는 대화형 AI 챗GPT의 등장에 광범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기대하고 있다. 기업들은 사무공간에서부터 불어온 새로운 변화가 인간 생활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생성 AI로 MS워드, 한글, 파워포인트 등 작업이 순식간에 이뤄지고 있다. 시간 낭비가 일상이던 단순 사무 처리가 몇 분만에 종료되는 시대에 진입한 것이다. 전 세계에서 챗GPT를 산업 곳곳에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각종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성배’로 평가받던 챗GPT가 오히려 ‘독배’라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에서 챗GPT의 활용과 한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다.

◇챗GPT가 가져온 저작권 침해 이슈 대응은? 챗GPT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표절 문제를 일으키게 되지 않을까. 챗GPT는 기술적으로 온라인상에 있는 정보를 학습해 결과물을 내기 때문에 불법 복제물을 걸러낼 수 있을 만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를 인터넷상에서 무분별하게 수집해 저작권 침해 위험성이 높다.

이에 이현규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인공지능사업단장은 “챗GPT는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고 생성하는 것이 아니고, 학습에 사용된 온갖 텍스트에 대해 단어들, 문장에서 등장하는 상대적인 위치를 학습해 그럴싸한 문장을 생성해 낸다”며 “이미 존재하는 문장들을 통해 단어를 어떻게 배치하면 좋을지를 배워 문장을 생성해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성된 문장 역시 어디선가 비슷한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따라서 챗GPT는 태생적으로 저작권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누군가 일방적으로 정답을 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공론을 거친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홍충선 경희대 컴퓨터공학부 교수는

온라인 정보 학습해 결과물 내 불법 복제물 거르는 기준 마련 시급 인간 감정·정서 구현 어렵지만 AI 기술의 한계 놓고 의견 갈려

“2차 가공된 내용이 상업적으로 이용된다면, 또 재가공된 내용이 저작물의 무단 사용이라면 이에 대한 지식재산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며 “저작권 침해는 각 나라에서 저작권 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탐지 기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설명 가능한 AI(XAI: Explainable AI)에 대한 연구를 통해 모델 학습의 중간과정에 대한 분석기술의 확보와 AI서비스 제공 시 처리과정에 대한 해당 로그의 설명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을 AI모델 내 내재화를 통해 저작권 문제 발생 시 대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사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인공지능연구센터장은 “신경망을 기반으로 한 창작물은 매 순간 최정확도를 기반으로 텍스트나 영상의 부분 부분을 결정하며 생성하기 때문에,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완벽하게 베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특정 부분을 그대로 가져오는 현상이 최근 생성AI모델의 결과에서 종종 관찰되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성원용 서울대 전기·전자공학부 명예교수는 “챗GPT 등 생성 AI는 훈련과정에서 패턴을 배우고, 생성과정에서는 난수발생기(random number generator)를 이용하여 출력을 내기 때문에 매번 결과가 다르게 나오고, 생성한 사람이 2차 창작물의 권한을 가질 수 있다”며 “어떤 저작물을 그대로 베껴온 것이 아니고 패턴을 배워온 것”이라고 말했다.

◇AI의 한계는 어디까지? 국내 산업계 대부분의 서비스에 AI가 적용돼있고, 또 적

## 전문가가 본 ‘챗GPT의 저작권 문제’



용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업 중에는 AI를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존재한다. 이 단장은 “AI로 구현하는 데 어려운 것은 인간미, 상식 개념,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이나 정서와 같은 미묘한 변화가 발생하는 상황 등 여러 가지가 있다”며 “AI기술의 끝은 특이점(singularity)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수준의 AI에 대해서는 단순히 학습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특이점이 돌파되는 것이 현실화된다면 그 파장은 상상하기 어렵고, 영화 ‘터미네이터’처럼 AI가 지배하는 세계의 등장을 떠

울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인간은 이러한 특이점의 출현이 가시화되기 전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대처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인간의 인지능력을 추월하는 AI가 등장하기는 어렵지만, 통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측면에서는 개별 인간보다는 AI모델이 우수하다”며 “하지만 결국 인간 집단의 능력을 추월하는 AI모델의 등장은 가능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신 센터장은 “이 기술의 세계적인 투자 활성화와 연구개발 고도화 속도를

감안하면, 단순한 지능·능력치·속력도의 측면에서는 평균 인간의 효율을 AI가 넘어서는 현상은 곧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러한 기술의 활용 과정에서 사회 문제화 되지 않으려면 인간 수준의, 혹은 인간보다 높은 기준치의 윤리와 가치관, 교감성을 AI가 확립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교수는 “경험이나 상황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하는 부분이 AI가 대체하기 힘든 부분”이라며 “하지만 이 부분도 AI가 빠르게 따라오고 있다”고 AI성장 속도에 대해 경고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 “투자 규모 큰 AI… 대기업이 개발 나서야”

기술개발, 산업 적용에 어려움 오픈AI 같은 컨소시엄 형태 추천

전문가들은 국내 IT기업의 문제점으로 기술개발을 산업에 적용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했다. AI는 서비스나 제품처럼 눈에 보이는 매개체가 아니기 때문에 AI만을 이용해 사업을 펼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분석이다.

이현규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인공지능사업단장은 “AI 기술을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려는 노력보다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진 기업과 협업을 통해 AI 기술을 적용하고, 그들의 제품이나 서비스 판매를 지원해 주는 방식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AI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충선 경희대 컴퓨터공학부 교수는 오픈AI와 같은 자금제공 관련 컨소시엄 형태의 컴퍼니를 제안했다. 다만 충분히 자유로운 환경에 지속가능한 형태의 컴퍼니

가 되고, 대우가 대기업보다 훨씬 더 좋아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그는 “AI 기술은 개별기업이 투자하기에는 투자규모가 너무 크다”며 “삼성과 현대차, LG 등과 같은 대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초거대 AI모델을 자체적으로 구축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IT기업들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사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인공지능연구센터장은 “10년, 20년 뒤의 잠재적인 삼성전자나 네이버를 키우기 위해서는 중소규모의 AI모델을 사업화할 수 있는 기술 기반 인프라와 거대 AI 공유 생태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성원용 서울대 전기·전자공학부 명예교수는 “챗GPT로 만들어지는 사업에서 가장 먼저 혜택을 보는 곳은 챗GPT 서비스 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 GPU(Graphics Processing Unit) 회사 등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KB국민 WE:SH 카드

time to WE:SH

■ KB국민 WE:SH 세 카드 연회비: 일반카드(국내전용(Local), 국내외겸용(MSA)) 2만원(기본연회비 7천원) + 제휴연회비 1만3천원, 모바일 단독카드(국내전용(Local), 국내외겸용(MSA)) 1만4천원(기본연회비 1천원 + 제휴연회비 1만3천원) ■ KB국민 Our WE:SH 카드 연회비: 일반카드(국내전용(Local), 국내외겸용(W Mastercard)) 1만5천원(기본연회비 7천원) + 제휴연회비 8천원, 모바일 단독카드(국내전용(Local), 국내외겸용(W Mastercard)) 9천원(기본연회비 1천원 + 제휴연회비 8천원) ■ KB국민 My WE:SH 카드 연회비: 일반카드(국내전용(Local), 국내외겸용(W Mastercard, AMEX)) 1만5천원(기본연회비 7천원) + 제휴연회비 8천원, 모바일 단독카드(국내전용(Local), 국내외겸용(W Mastercard, AMEX)) 9천원(기본연회비 1천원 + 제휴연회비 8천원) ■ 연회비: 환원비 / 이용상품별 상상이자율 + 3%p, 최고 연 20% 이내 ※ 단, 연체발생시점에 청산이자율이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일시를 거래 연체 시: 거래발생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수수료를 적용 - 무이자할부 거래 연체 시: 거래발생시점의 동일한 할부기간(2개월)의 유이자 할부수수료를 적용 ■ 개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절한 경우(개인신용평점 낮음, 연체금 보유 등)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19조제1항에 따라 해설상담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여신금융협회 성의팩 제 2023 - C2b - 01317호 (2023.02.17 ~ 2024.02.16)

KB국민카드

# ‘자금 블랙홀’ 초우량채 출현에… ‘돈줄’ 타는 비우량채

## 크레딧 시장 ‘스프레드 확대’

초우량물인 한전채, 주택저당증권(MBS), 은행채 등의 대규모 발행을 앞두고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크레딧 시장의 구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까지 예상되면서 시장의 부담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참가자들은 시장 전반의 ‘블랙홀’ 위기에 공감하면서 물량 부담의 강도는 금리 인하 등 정책변수, 신용이벤트와 더 연계될 것으로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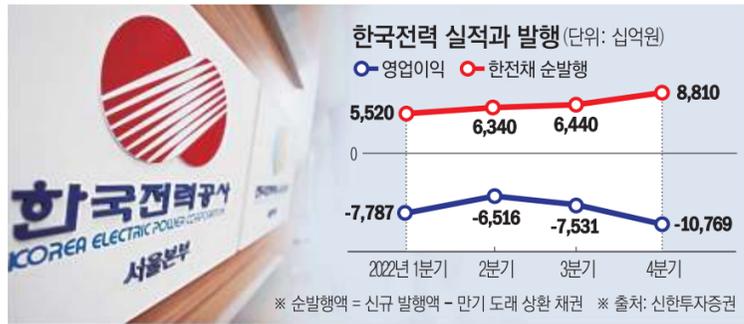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순발행 마이너스(-)를 이어오던 은행채는 이달 들어 발행 폭을 확대하고 있다. 이달 14일까지 발행된 4월 은행채는 약 7조 원으로 이대로라면 지난해 발행액(10조 6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로 시행된 은행채 발행 한도 규제가 지난해부터 125%까지 완화된 영향이다.

## 한전채·MBS·은행채 대규모 발행 국채도 출격준비…자금쏠림 우려 물량부담, 금리·신용리스크 비례 “정책금리 인하로 안정화 피해야”

은행채는 연말까지도 대규모만기도래 물량이 쌓여 있다. 올해 은행채 만기도래액은 164조 6900억 원 수준으로 이중 약 122조 원 규모의 만기가 3분기까지 몰려 있다. 월별로 보면 다음달 은행채 만기도래액이 약 23조 원으로 연간 최대 수준이다. 여기에 특례 보증자리론 흥행에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물량도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권시장 참가자들은 한전채, MBS, 은행채, 국채 등 대규모 우량물을 시장 전반적인 위험요소로 평가하면서 이 가운데 MBS 발행 물량이 구축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최대 요인으로 지목했다.

A증권사의 채권운용역은 “국채를 포



함해 초우량물 발행이 단기간에 집중돼 금리 상승과 스프레드 확대가 우려된다”며 “통상 신용스프레드가 9월부터 벌어지던 점을 감안하면 스프레드 확대에도 부정적 영향이 될 수 있다. 지금도 한전이 전기요금을 늦게 올리기 시작하면 한전채, 공사채 발행이 늘어나고 그 아래로 문제가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전채를 시작으로 캐피탈채까지 구축 효과가 발생했듯이 올해도 한전채와 은행채를 중심으로 시장 유동성을 빨아들일 수 있다는 뜻이다. B운용사 채권운용역

은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비해 채권 공급 물량 부담이 증가해 크레딧 스프레드가 확대할 것”이라며 “자금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 외환시장 안정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정상화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다.

한 증권사 채권애널리스트는 “MBS는 작년에도 이미 있던 발행이 줄어지면서 물량이 제일 커서 금리를 가장 키울 수 있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며 “국채는 15조 원 수준이면 예전만큼 큰 규모가 아니고, 한전채도 만기가 짧은 2·3·5년짜리라서 크게 우

려될 만한 수준이 아닐 수 있다”고 했다.

“자금 블랙홀” 보다 지난해 레고랜드처럼 신용리스크 이벤트 발생으로 인한 채권시장 스프레드 확대 우려가 크다는 시각도 있었다. A증권사의 채권운용역은 “PF(프로젝트파이낸싱) 쪽 상태가 안 좋다. 부동산 PF는 캐피탈채가 많은데, 하반기 추경까지 시작되면 국고채, 한전채, 은행채 순으로 악영향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대규모 우량물 발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장 유동성이 안정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완화 확인에 따른 정책금리의 실질적인 인하 시그널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B운용사 채권운용역은 “금리인상 마무리 이후 결국 빠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초에는 금리 인하 사이클로 갈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도 정책금리가 높은 수준이어서 정상화가 되기 위해서는 물가안정 확인 및 이에 따른 정책금리의 실질적인 인하 시그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희민 기자 hihello@

## 주요국 자국우선주의 지속 땀 국내 미래산업 불확실성 급증

### 한은, 해외산업정책·시사점 보호무역, 세계 GDP 2% 감소 韓 반도체·전기차·이차전지 약화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면서 주요국에서 핵심 산업에 대한 자국 중심주의 산업정책이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같은 기조는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내 업체들의 투자 환경에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은 16일 해외경제 주요 이슈 분석 ‘주요국 자국 우선주의 산업정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 산업정책은 향후 핵심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차에 집중돼 있다. 팬데믹 이후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정책 기조가 강화되면서 이와 관련된 핵심산업인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차 산업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들 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경제안보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면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자국 우선주의 산업정책이 추진되는 것이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산업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는 목적도 작용했다. 이차전지의 경우,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우려국가에서 생산한 부품·핵심광물 사용 시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유럽은 핵심원자재법(CRMA)을 통해 이차전지 원자재의 제3국의

존도를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중국산 원자재를 주로 사용하는 이차전지 기업들은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중국산 의존도를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요국은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핵심산업에 대한 자국 생산능력 확충을 도모하고 있다.

보고서는 “산업정책을 통한 각국의 보호무역 기조는 자국의 생산 및 고용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기술적 상호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핵심산업 부분의 무역장벽은 각국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IMF는 자국 우선주의 산업정책으로 인한 세계교역단절이 심화할 경우 글로벌 GDP가 장기적으로 2%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국내 업체의 불확실성도 커질 전망이다. 보고서는 “미국과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국내 투자가 줄어들 수 있는 만큼, 국내 투자 확대 유인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기차는 생산 거점이 미국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며 “반도체의 경우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과 대중반도체장비 수출규제, 미·중 갈등이 중국 생산 비중이 높은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과 투자 등 경영환경에 상당한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차전지 또한 현재 국내 업체의 중국산 핵심광물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IRA와 CRMA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향후 공급망 다변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영록 기자 syr@

## “시장 커지는데 인력 부족”… K배터리 인재확보 사활

### 글로벌 채용행사 열며 인재 선점 대학과 손잡고 직접 인력 양성도 “학과 정원확대 등 정부지원 필요”

배터리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는 가운데 인력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글로벌 채용행사를 열거나 대학과 손잡고 직접 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지만 인재 확보가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배터리 산업의 성장세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의 임직원 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 각 사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사의 임직원 수는 2만 5996명이다. 2021년과 비교하면 1년 새 16.1%(3605명) 급증했다.

대규모 충원에도 업계는 여전히 인력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배터리 3사의 채용 홈페이지에는 모두 마감 기한을 올 해 말까지로 둔 연구개발(R&D) 직군 상시 채용 공고가 올라와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의 성장세에 비해 배터리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화학



LG에너지솔루션은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글로벌 인재 채용 행사 BTC(Battery Tech Conference)를 개최했다. 사진제공 LG엔솔

이나 자동차 부품 등 관련 경력이 있는 이들도 채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글로벌 인재 선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글로벌 우수 인재 채용행사 ‘배터리 테크 콘퍼런스(BTC)’를 개최하고 인재 선점을 위해 주요 경영진이 총출동했다. 이 행사에 MIT, 스탠퍼드, UCLA, 퍼듀 등 미국 주요 대학 및 연구소에서 선발된 석·박사 인재 40여 명이 참석했다.

삼성SDI는 최근 중국 상하이 R&D 연구소 ‘SDIR&D 차이나(SDIRC)’를 설립했다. 앞서 지난해 7월 독일 뮌헨에

‘SDIR&D 유럽(SDIRE)’을, 8월에는 미국 보스턴에 ‘SDI R&D 아메리카(SDIRA)’를 각각 설립했다. 글로벌 R&D 연구소 설립은 지역별 특화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회사 측은 설명했다.

배터리 3사는 국내 대학들과 손잡고 취업이 보장되는 계약학과를 운영하거나 산학협력 배터리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직접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가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는 만큼 계속해서 정부에 관련 학과 정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문정 기자 kangmj@

## 추경호 부총리 “유류세 조정, 이번주 결정”

### “민생부담·국제유가 진지하게 고려”

정부가 이번 주 중으로 유류세 조정 여부를 발표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13일(현지시간) 동행기자단과 만나 “당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유류세 운영방안을 이번 주 중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국제유가가 높을 때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했는데, 4월 말까지 적용하기로 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재정 상황 등도 고려해야 하지만 최근 OPEC+(러시아 등 비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에서 감산을 결정해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커졌기에 그에 따른 민생 부담도 다시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 25%·경유 37%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 중이다. 올해 국제유가는 지난달 실리콘밸리은행(SVB) 위기 등을 겪으며 한때 배럴당 60달러대까지 떨어졌지만, 최근 OPEC+의 감산 계획이 전해지면서 다시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종합적

으로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 조정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올해 세수 상황에 대해 “1분기에는 굉장히 녹록지 않다”며 “이게 한 해 어떻게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세입 경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세수 추계를 새롭게 내부적으로 한다고 해서 반드시 추경하는 건 아니다”라며 “현재로서는 추경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민간 부담을 줄여주고 경쟁력을 뒷받침할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며 “이달 중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1인당)

# 자영업 다중채무자 4.2억 대출... 고금리 시한폭탄 재각

## ④가계부채 부실 뇌관 자영업자

#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50대 자영업자 A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손님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대출을 받아 근근이 버티고 있다. 임대료는 커녕 당장 직원 월급 주기도 버거워진 지 오래다. 문제는 A 씨가 급하게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다가 한도가 예상만큼 나오지 않자 대부업까지 손을 댔 것이다. 저축은행 2곳과 대부업체 1곳 등 총 3곳에서 7000만 원의 돈을 빌린 A 씨의 평균 금리는 연 12%대에 달한다. 월 130만 원가량을 이자와 원금으로 내야 하는 A 씨는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소식에 신청하려 했으나, 대부업 대출의 경우 갈아타기가 안 된다는 말에 다시 한번 좌절했다.

가계빚의 '악한 고리'인 자영업자와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더욱 위태로워지고 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여러 금융기관에서 빚을 진 자영업자는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 급격히 오른 금리에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 이자도 제대로 내지 못한 위기에 처한 이들의 연체율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가계

173만명 3곳 이상서 대출받아 빚 내서 빚 갚고 사채 빠지기도 1·2월 회생신청만 2만건 육박

코로나대출 만기 연장 끝나면 미확인 부실채권도 '수면 위로'

부채의 뇌관을 흔드는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 우려가 나온다.

16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는 1019조8000억원이다.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해 3분기(1014조2000억원)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한 후 이번엔 또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한은이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개인사업자대출 보유자를 자영업자로 간주하고, 이들의 가계대출(348조1000억 원)과 개인사업자대출(671조7000억 원)을 더해 분석한 결과 2020년 코로나19 발생 직후 저금리 대출을 받았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계속되는 불경기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높은 이자

까지 떠안게 된 실정이다.

특히 A 씨의 사례처럼 전체 자영업자 중 56.4%(173만 명)는 가계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수와 개인사업자대출상품수의 합이 3개 이상인 다중채무자였다. 사실상 자영업자 차주 10명 중 6명은 더는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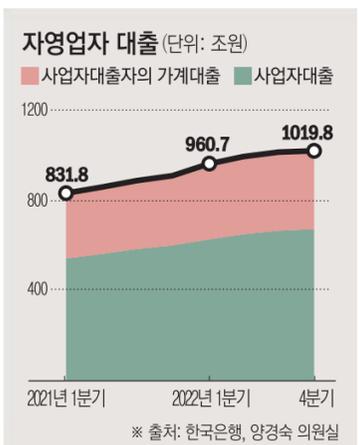
대출액 기준으로는 전체 자영업자대출의 70.6%(720조3000억 원)가 다중채무자였다. 이들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은 작년 4분기 말 기준 4억200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막상 자영업자들이 정책금융상품을 신청하기도 쉽지 않다.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금융 상품이 있지만, 경쟁이 치열해서 순식간에 마감된다. 최근엔 온라인 신청을 받다 보니 PC가 익숙하지 않은 이들은 신청 자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이들은 빚을 내 코로나19 시기를 버텨지만, 금리 인상기에 이자 부담까지 커지면서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기 일쑤

다. 최근엔 개인회생·파산 신청도 급증했다. 이자 부담을 버티지 못하고 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2월 개인회생 신청 누적 건수는 1만8954건에 달한다. 전년 동기(1만2973건)보다 46.1%나 늘었다. 2월 개인파산 신청 건수 역시 3448건으로 전년 동월(3025건)보다 14.0% 증가했다. 올해 하반기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대출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가 종료되면 자영업발(發) 연체 대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보니 차후 만기가 돌아오면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만기연장이나 이자상환 유예조치가 된 채권은 서류상 정상채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당장 수치상으로는 자영업자대출의 부실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을 수 있다"며 "자칫 문제가 터졌을 때 그만큼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기자 lly0403@



## 정책금융으로 '부실 돌려막기' 뾰족한 해결책 없어 더 큰 문제

### IMF, 韓 부채 경고 잇달아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가계부채 위험을 경고했다.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가능성을 지적했던 IMF가 연이어 한국 가계 빚의 취약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한 것이다. 한국의 가계 빚에 경고등이 켜진 지는 이미 오래다. 특히 가계부채의 '악한 고리'로 꼽히는 자영업자 대출은 1000조 원을 넘어섰고 이들 중 절반은 여러 군데 빚을 내 버티고 있는 다중채무자들이다. 경기 침체 속 가팔라진 금리 인상으로 이들이 금융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문제는 정부도 뾰족한 해결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IMF는 11일(현지시간) 발간한 '세계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가계부채 취약 국가로 스웨덴·벨기에·프랑스와 함께 한국을 지목했다.

IMF는 이들 국가의 가계빚에서 출발한 위험이 경제 전체로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제연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최근 발표한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 추정 및 시사점' 분석보고서를 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105.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통계 확보가 가능한 나라) 중 4위다.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면 그 비율은 156.8%로 한국이 1위다.

이처럼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는 잇따라 쏟아지고 있지만, 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대부분 정책금융에 그치는 데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2일부터 긴급생

긴급 생계비 대출 등 정부 노력 금융사 '금리인하' 상생안 내놔 '민관 합심해야 정책 시너지효과'

계비대출 제도를 시작했다. 이 제도는 취약계층의 시급한 자금 사정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100만 원 내에서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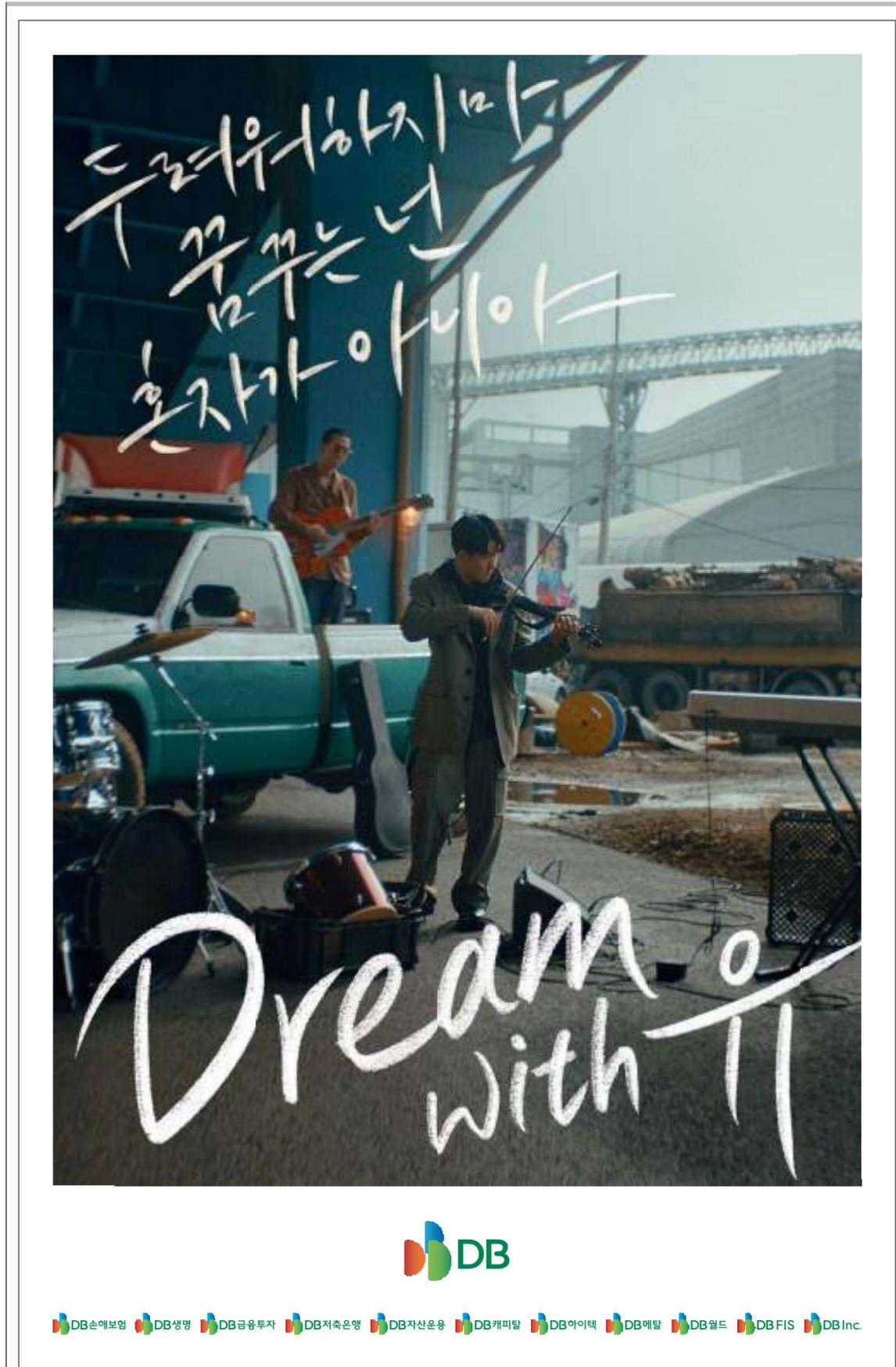
지원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저신용자다. 해당 대출은 최초 5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하면 추가적으로 50만 원을 대출 지원하는 방식이다.

가문의 단비 같은 정책이지만, 일각에선 금리가 너무 높다는 비판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0만 원을 금융 취약계층에 빌려준다는데 이자는 무려 15.9%를 받겠다고 한다"며 "단 한 푼도 손해 보지 않겠다는 태도로 정부 취할 태도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민간 금융사들에 대한 역할도 강조되고 있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권을 순회하며 금융취약계층 서민들의 가계부채 지원을 끌어냈다. 은행들은 이원장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금리 인하를 골자로 하는 상생금융안을 내놨다. 금감원은 가계 대출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해본 결과 연간 차주 170만 명이 3300억 원 수준의 대출이자 감면 효과를 예상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부채 완화를 위해서는 민간과 당국의 정책이 조화를 이뤄야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ova@



# 세월호 9주기... 與 “모두가 경각심을” 野 “무능한 정부 여전”

‘세월호참사’ 9주기인 16일 여야는 일제히 추모의 메시지를 내놓았다. 다만 여당은 안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환기시킨 반면, 야당에서는 국가의 책임을 내세우며 윤석열 정부를 겨냥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세월호 참사 이후 아홉 번째 봄이 찾아왔다”며 “자녀, 가족, 친구를 가슴에 묻고 9년의 세월을 견뎌오신 유가족과 생존자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국민들은 오늘이면 그날의 비극을 다시 떠올린다.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국민들 모두 절절히 기도했던 순간”이라며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 준 기억은 엄중하다. 일상에서의 안전은 저절로 지켜지지 않으며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최선을 다할 때만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SNS에 “9년 전 그날 진도 앞바다에 국가는 없었다. 세월호 이후의 대한민국은 세월호 이전의 대한민국과 달라야만 했다”

與 “미비한 제도 개선 노력”

野 “사고 후 달라진 게 있나”

국가 안전대책 온도차 확인

여야 지도부 ‘기억식’ 참석

이주호 부총리는 참석 안 해

교육부 장관 6년 만에 불참

며 “그러나 각자도생 사회로 다시 회귀하고 있다. 아이들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아이들은 우리에게 ‘국가란 무엇이고,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물음을 남겼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의 최우선 책임임을 일깨웠다”며 “한 톨의 의혹도 남기지 말자는 유가족들의 외침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우리 모두의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제1의무”라며



16일 경기도 안산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9주기 기억식’에서 김기현(오른쪽부터)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묵념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일을 포함해 나라가 나라다울 수 있도록 정치의 책임을 다하겠다. 그것이 살아남은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라고 밝혔다.

강선우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9년 전 오늘 ‘가만히 있으라’는 무책임한 말에 304명의 생애같은 아이들을 잃었지만 대

한민국은 또다시 국가의 책임을 외면한 채 159명의 젊은 생명을 떠나보내고 말았다”며 “9년이 지난 지금 국가는 달라졌는가, 대한민국은 안전한가”라고 물었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행사에 불참했다. 교육부 수장이 세월호 기억식에 불참한 건 6년 만이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3시 경기도 안산시에서 열린 세월호 9주기 기억식에 이 부총리 대신 장상윤 차관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11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안전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주관 ‘국민안전의 날’ 행사는 코로나19 때문에 4년 만에 개최된 중요 행사”라며 “세월호 기억식도 추모 의미나 중요성으로 박사 부총리가 참석하려고 했으나 안산에서 열리는 데다 인파 때문에 교통 여건이 불확실한 점을 고려해 차관이 역할을 분담해 참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버리 기자 kimstar1215@

손현경 기자 son89@

## ‘돈봉투’ 녹취파일 터지자... 부랴부랴 ‘자체조사단’ 꾸리는 민주당

“수사기관도 아니고 수사권도 없어 큰 성과 못낼 것” 내부서도 회의론 與 “전당대회 실제 국민께 밝혀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1년 당대표 수락연설을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돈 봉투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진상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파장이 계속 되자 ‘뭐라도 해야 한다’는 고민 끝에 나온 대응이지만, 보여주기 식에 그칠 수 있다는 회의론도 나온다.

민주당은 처음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야당 탄압, 정치검찰이라며 역공을 펼쳤다. 그러나 관련 인사들의 녹취가 공개되는 등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자 당 지도부는 조사단을 꾸려 자체 진상규명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선우 대변인은 15일 기자들과 만나 “내부 논의를 마친 뒤 다음 주쯤 돈 봉투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기존 당 조직을 활용할지, 별도 기구를 설치할지 여부나 구체적인 방식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자체 조사가 실효성을 담보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16일 민주당 소속 한 중진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이 뭐가 있겠냐”며 “당에서 지금 뭐라도 안할 수 없으니 진상조사단을 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상조사단은) 수사기관도 아니고, 수사권도 없다”며 “조사를 한다고 해도 당사자들이 이미 언론

에 밝혔듯 ‘무관하다, 기획수사다’ 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당 의원들도 곤혹스럽다는 분위기다. 비명계인 조영천 민주당 의원은 최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언론에서 육성으로 된 녹취, 녹음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라 안 믿을 수도 없고, 황망할 따름”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프랑스에 머무는 송영길 전 대표가 자진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의혹을 두고 ‘이정근 게이트’, ‘좌파 게이트’라며 비판 공세를 높이고 있다. 이날도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

인은 논평에서 “이대표 사법리스크에 비해 돈잔치 선거쯤은 별 거 아니라는 잠재적인식이 있지 않겠냐”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전당대회’ 돈 봉투를 열어 그 실제적인 실을 국민께 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송 전 대표는 외국에 도피해 개인적 일탈이니, 검찰 조작이니 궤변으로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고 즉각 귀국해 수사로 협조하는 것이 그나마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에 오갔을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특히 돈 봉투가 민주당 현역 의원 10명, 많게는 20명한테까지 전달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정영민 기자 oin@

**추억의 국민학교 떡볶이**

세계 어느 곳에서나 진심으로 통하는 맛

**추억의 국민학교 떡볶이**

**전 세계 30개국**에서 만나보세요!

www.kukdduk.com

추억의 국민학교 떡볶이

데이터 출처: 자사 수출 국가 기준

고객센터 1644-9798

**Samsung**  
Financial Networks

# 은퇴 후 인생고민?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체계적 교육  
노력하는 만큼 소득 UP  
정년 없는 평생직장이니까!

은퇴 후 멋진 인생,  
QR 코드로 확인해 보세요



## 삼성생명 GFC로 선택하길 잘했지!

삼성생명 GFC(Group Financial Consultant)는 단체보험 컨설팅으로 기업복지를 증진시키고 CEO 가업승계와 임직원 보장/은퇴설계를 제안하는 기업보험 전문 컨설턴트입니다.

지원자격 : 만 30세 이상 남녀, 직장경력 3년 이상 | 선발절차 : 직무설명회 → 면접 → 교육 → 등록

※기타 문의사항은 지역에 따라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삼성생명

· 서울(시청) 02-3706-3772, 02-754-2092 · 서울(광화문) 02-318-0831 · 서울(강남) 02-3453-2739, 02-540-6028 · 인천 032-429-5381  
· 수원 031-221-0326 · 충청 042-487-6082 · 부산 051-637-1825 · 대구 053-254-1132 · 호남 062-375-8230

※본 광고물은 임직원 채용이 아닌 컨설턴트 모집용 자료입니다.

준법감시필 23-0561 (커뮤니케이션팀, 2023.3.27~2024.3.26)

중 시장 기대에도 불안 여전

# 중 '리오프닝 효과' 아직 한밤중

지난달 수출액 104.2억달러 작년 2월 이후 꾸준히 감소세 수입액은 늘며 6개월째 적자 일각 "현지 소비회복속도 느려 가시적 효과 기대는 시기상조"

정부의 예상과 달리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좀처럼 우리 수출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급감이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무역수지 적자 행진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16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0%에 육박하는 대중(對中) 수출액은 지난달 104억20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보다 33.4% 급감했다. 이로써 대중 수출은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달 1~10일 대중 수출도 전년 대비 31.9% 줄어 반등의 여지가 불투명하다.

이러한 수출급감은 대중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최대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대폭 줄어든 것에서 기인

한다. 지난달 1~25일 대중 반도체 수출액은 22억6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49.5% 감소했다. 이로 인해 우리 전체 수출도 휘청거리고 있다. 지난달 수출액(551억3000만 달러)은 1년 전보다 13.6% 감소해 5개월 연속 내리막을 걷고 있다.

반면 지난달 대중 수입액은 1319억 달러로 전년보다 4.5% 증가했다. 중국으로부터 원자재 등의 수입이 늘어난 탓이다. 이에 따라 대중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는 27억7000만 달러 적자로 6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이는 지난달 전체 무역수지 적자액(-46억2000만 달러)의 절반에 달하는 수치다. 무역 적자는 지난달까지 13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대중 수출 감소 및 무역적자 지속은 정부가 기대해온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좀처럼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2월 '2023년 재정경제 금융관회의'에서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해제에 따른 리오프닝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수출 및 무역수지가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 현지 소비회복 속도

가 빠르지 않아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당장 가시화하는 건 어렵다는 분석이나 온다.

KB금융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가계의 가처분소득 중 소비지출로 쓰여야 할 부분이 쓰이지 않고 저축으로 축적되는 초과저축(약 752조~1391조 원)이 막대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 가계의 소비지출 증가세 둔화, 주택 구매 감소, 금융상품 투자 위축 등에서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기대감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때까지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국의 자체 조달능력 향상도 대중 수출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2015년부터 '제조 2025년 정책'을 추진하면서 부품의 자체 조달이 가능해진 상황이다.

우리나라로서는 중간재, 자본재 등의 수출이 줄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예가 이차전지다. 관련 중국 기업의 자국 내 시장 점유율이 지속해서 상승하면서 지난달(1~25일) 한국산 이차전지 대중 수출(4000만 달러)은 전년보다 33.3% 줄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 중 경기 새벽이 온다

진출기업 2분기 BSI 보니 200에 가까울수록 개선세 뚜렷 시황 112... 업종선 車 145 최대 '코로나 부정적 영향' 역대 최저

우리 수출의 큰손인 중국시황이 살아날 것이라 전망이 나왔다. 특히 시황과 매출이 각각 네 개 분기, 세 개 분기 만에 개선할 것으로 전망해 10개월 연속 마이너스의 부진을 끊어 낼지 관심이 쏠린다.

산업연구원은 이런 내용의 중국 진출한국기업 경기실태조사 결과(1분기 현황 및 2분기 전망)를 16일 발표했다. 기업경기실사지수(BSI) 100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개선, 0에 가까울수록 악화를 뜻한다. 2분기 전망 BSI는 시황이 112, 매출이 121로 각각 네 개 분기, 세 개 분기 만에 100을 돌파했다. 현지 판매도 124로 세 개 분기 만에 100을 상회했고 영업환경도 115로 일곱 개 분기 만에 100을 넘어섰다.

제조업은 120, 유통업은 125를 기록했고 업종별로는 전기·전자(95)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100을 돌파했다.

자동차 145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섬유·의류 130, 화학 126, 금속 기계 119 등 순이다. 종사자 규모별로는 대기업 103, 중소기업 124를 기록했다.

지난달 대(對)중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3.4% 감소했다. △반도체(공급 과잉 및 가격 하락 지속) △이차전지(중국기업의 자국 내 시장 점유율 지속 상승) △일반기계(중국제조업 수요 회복 부진) 등 주요 품목 수출 부진, 중국 경기 회복 둔화 등으로 수출이 줄었다.

이런 가운데 중국 현지에 있는 우리기업이 2분기 중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놔 10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는 대중 수출이 2분기인 4~6월 중 플러스로 전환할지 관심이 쏠린다.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중국 내에서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분기부터의 조사 결과 이후 부정적 영향이 최저인 48%를 기록했고 52%가 영향 없음으로 답한 점도 긍정적이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한달간 남산터널 양방향 무료 16일 남산 터널에 혼잡통행료 면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서울시는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효과 확인을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강남 방향의 통행료를 받지 않고 있다. 17일부터 양방향 면제다. 5월 17일 오전 7시부터 원래대로 징수한다. 연합뉴스

## “네 돈으로 키크랩 사와” 사실 ‘극단 선택’ 직원 괴롭힘 확인

올해 1월 직장 내 괴롭힘 및 신고를 이유로 한 부당 업무명령으로 30대 직원을 극단 선택으로 몰고 간 장수농협(전북 장수군)에서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지난해부터 다수 상급자가 승진 A 씨에게 면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말근무 대체 요청에 응하는 조건으로 27만5000원 상당의 키크랩을 사비로 사오도록 요구해 수취했다. 이에 A 씨가 사측에 가해자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자, 사측은 A 씨를 타 부서로 발령하고 내부 전산망 접속이 불가한 PC 자리를 배정했다.

또 처리해야 할 반품요청 건이 없음에도 ‘반품되지 않은 물량을 처리하라’고 지시하고, 변명적 사유를 작성하지 못하도록 강요했다.

특히 사측은 신고 처리 과정에서 가해자의 지인인 공인노무사를 선임하고,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다. 이런 편향적인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이후 A 씨를 원 소속 부서로 복귀시켰고, A 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감독에 앞서 A 씨의 유족은 A 씨가 키크랩을 사기 위해 택시로 서울 노량진수산시장까지 다녀왔으며, 가해자들은 A 씨의 화장실 이용 횟수까지 확인해 면박했다고 호소했다.

장수농협은 이번 감독에서 A 씨 외 다른 직원들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도 대거 적발됐다. 이에 노동부 전주지청은 6건을 형사입건하고, 총 6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 5개월째 줄어든 청년취업... 알바·계약직만 늘었다

390만명 취업... 전년비 9만명 뚝 정규직은 줄어드는데 일용근로자↑ '계약기간 1개월 미만' 1만명 늘어

지난달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390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8만9000명 감소했다. 청년 취업자는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세다. 취업해도 고용의 질이 나쁜 임시·일용직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월 거리두기 해제로 배달 취업자는 급감했지만, 숙박·음식점 취업자는 늘었다.

16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 마이

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3월 청년 취업자는 390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8만9000명 감소했다. 청년 취업자는 지난해 11월 5000명 줄면서 21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는데 5개월 연속으로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전체 취업자가 46만9000명 늘어 10개월 만에 증가 폭이 확대된 것과 대조된다.

청년 취업자 감소는 인구 감소(-18만1000명)와 기저효과에 기인한 측면이 있지만, 고용의 양뿐 아니라 질도 나빠지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3월 청년 임시근로자는 106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3000명 늘었다. 임시근로자는 고

용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거나 고용계약 없이 단기적으로 고용된 취업자를 가리킨다.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청년 일용근로자도 13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 명 늘었다. 반면 청년 상용근로자는 249만4000명으로 4만5000명 줄었다. 상용직 청년 취업자 감소는 제조업(-4만명)과 도소매업(-3만8000명)에서 두드러졌다.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되는 상용직 청년 취업자는 줄고, 종사상 지위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 청년 취업자는 늘어난 셈이다. 산업별로 보면 숙박·음식점업에서 아

르바이트 성격의 임시·일용직 청년 취업자가 크게 늘었다. 숙박·음식점업 청년 취업자 가운데 임시직은 36만5000명, 일용직은 5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각각 5만7000명, 1만5000명 늘었다. 숙박·음식점업에선 상용직 청년 취업자(16만4000명)도 3만 명이나 늘었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청년자영업자는 1만2000명으로 음식 배달 등이 포함되는 운수·창고업(-1만5000명)에서 가장 많이 줄었다. 1년 전(2만7000명)과 비교하면 반 토막 났다. 음식 배달 등의 주문은 줄어들고 외식 등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 中 명품 수요 기대에 佛타오른 증시... 유럽도 '활활'

佛 CAC40지수 올해 16% 급등  
에르메스·LVMH 등 업체가 견인

스톡스유럽50지수, 22년來 최고  
美 다우·S&P500 상승폭 추월

프랑스 증시가 중국의 명품 수요가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에 힘입어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다. 프랑스 시장 활황에 유럽증시도 미국을 압도하는 모습이다.

1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프랑스 증시 벤치마크인 CAC40지수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16% 오른 끝에 전날 7519.61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지난해 9월 말 저점 이후로는 30% 이상 상승해 같은 기간 범유럽 벤치마크인 스톡스유럽600지수와 미국증시 S&P500지수를 능가했다.

지난해 4분기 시작 후 지수 상승분의 약



3분의 1은 에르메스와 케링,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 로레알 등 명품기업의 몫이었다. 이들 주가는 이 기간 각각 61%, 25%, 45%, 28% 상승했다. 에르메스와 LVMH 주가 역시 전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프랑스 럭셔리 브랜드의 약진은 중국

명품 수요가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따른 것이다.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시작 전 중국 소비자의 명품 지출액 3분의 2는 해외에서 발생했다. 이에 팬데믹 기간 부진했던 명품기업들의 실적은

올해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 철회 속에 회복세를 보인다.

지난주 LVMH는 1분기 글로벌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에르메스는 중국 수요 반등을 기반으로 1분기 아시아 매출이 23% 늘었다고 보고했다.

바클레이스의 에마누엘 카우 유럽 투자 전략가는 "일부 글로벌 투자자는 명품과 같은 유럽 주식을 통해 중국에 대한 간접적인 익스포저를 취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쉽고 유동적이며 덜 위험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문제는 명품이 소비 침체 영향을 받을 것 인지"라며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증시가 강세를 보이자 유럽증시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 유럽 블루칩 기업을 종합한 스톡스유럽50지수는 연초 대비 10.8% 상승하며 2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고, 스톡스유럽600지수도 올

해 들어 9.9% 상승했다. 이 기간 미국증시 다우지수는 2.2%, S&P500지수는 7.8% 상승하는 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명품 증종의 약진과 더불어 고금리 환경에 글로벌 투자자의 '가치주'에 대한 기대가 커진 점도 유럽증시에 호재로 작용했다고 짚었다.

아비바인베스트먼트의 리처드 살단하 수석 펀드매니저는 "저금리 기조가 바뀌었고 이는 시장을 이끄는 동력이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늘 미국보다 가치주에 더 가까웠던 유럽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안드레아스 브루크너 투자전략가는 "유럽에서 에너지와 관련한 대규모 경기침체는 오지 않았고,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효과는 커지고 있다"며 "유럽 주식이 미국을 이기기 위한 거의 완벽한 조합"이라고 말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 삼성 메모리 감산에... 외신 "이병철 회장의 초심 잊지말라"

"인텔처럼 안주하는 시그널" 비판  
업계 "4조 적자에 불가피한 감산"  
삼성 "인프라·R&D 투자 확대중"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감산에 대해 "안주하는 신호"라고 비판했다. 해당 매체는 위기 극복을 위해 이병철 선대 회장의 정신을 되살리라며 경고하기도 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삼성은 인텔 같은 안주를 경계해야 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감산 결정이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지만 동시에 삼성(家)가 현재에 안주하려고 한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삼성전자가 업계 1위 위상이 너무 편해 경쟁사들로부터 더 이상 사업을 빼앗으려는 욕구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삼성전자가 이병철 창업회장 때의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1984년 삼성반도체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있다. 출처 호암재단

초심을 되찾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특히 지난 1983년 이전 회장이 '도쿄선언'으로 반도체 사업 진출을 발표할 당시 근면한 인력을 토대로 메모리 시장을 장악한 것을 언급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삼성전자는 이런 진정한 근성 혹은 호전적 직업의식으로 대표되는 이병철 정신을 재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러나 메모리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감산이 '안주'가 아닌 불가피한 선택

이었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업황 악화 수준을 고려했을 때 더는 감산 없이 버티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지난 7일 삼성전자가 발표한 올해 1분기 잠정실적에서 영업이익은 6000억원으로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 아래로 추락한 것은 14년 만이다. 특히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이 4조 원 안팎의 적자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 재고 자산 역시 지난해 말 29조576억 원으로 전년보다 76.6% 급증했다.

삼성전자의 감산 발표 직후 D램과 낸드플래시의 가격 상승세로 돌아서며 반도체 업황 개선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지난 11일 'DDR4 16Gb(기가비트) 2666' D램 현물가격은 3.235달러로 전일 대비 0.78% 상승했다. D램 현물가격이 오른 것은 2022년 3월 7일 이후 401일 만이다. 낸드 가격 역시 13일 오전 '3차원(3D) 트리플레벨셀(TLC) 512Gb' 제품 가격 기준 4.642달러로 전날보다 0.4% 올랐다.

삼성전자는 중장기적인 수요를 위해 반도체 확충기에도 인프라와 연구개발(R&D)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삼성 전자 관계자는 "단기 생산 계획은 하향 조정했으나 중장기적으로 견조한 수요가 전망된다"며 "필수 클린룸 확보를 위한 인프라 투자는 지속하고 기술 리더십 강화를 위한 R&D 투자 비중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다솜 기자 citizen@

## 회복 신호탄 쏜 中부동산 70개 도시 중 64곳 반등

중국 부동산 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15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부동산 경기를 보여주는 주요 70개 도시 신규 주택 가격이 전월 대비 평균 0.4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월에 0.3% 오르며 18개월 만에 상승 전환한 데 이어 상승 폭이 더 확대된 것이다.

특히 3월 70개 도시 전체의 90%에 해당하는 64곳의 신규주택 가격이 전월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고, 57곳은 기존주택 가격도 전월보다 올랐다. 각각 45개월, 23개월 만의 최대치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2020년 당국이 과열 양상을 잡겠다고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신규 대출 제한 등 고강도 규제에 나서면서 장기 침체에 빠졌다. 그러나 '제로 코로나' 폐지 이후 본격적인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에 따라 아파트 판매가 회복되면서 주요 도시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분석했다.

관건은 이 같은 주택 판매 회복세가 얼마나 지속될지 여부다. 중국 흥터증권에 따르면 3월 부동산 거래면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3월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4.2% 밀렸었다.

중국 가계의 주택 구매 의향이 바닥을 친 것일 뿐 본격적인 부동산 시장 회복세가 시작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인민은행이 예금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4-6월(2분기) 주택 매입 관련 지출을 늘릴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7.5%에 그쳤다. 이는 1분기(16%)보다는 오른 것이긴 하지만, 20%대였던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국가통계국도 "현시점에서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조정단계에 있다"는 조심스러운 평가를 내렸다. 닛케이도 "중국 경제 전체의 재조정에 따른 고용이나 소득 개선이 부동산 시장 회복의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 수단, 군부 무력충돌... 민간피해 속출

'독재 축출' 1·2인자 권력다툼서 발발  
민간인·군인 등 부상자 600명 육박

수단에서 정부군과 반군이 이틀째 교전을 벌이면서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 각국은 자국민에 대해 피령을 내렸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회의의를 열기로 했다.

16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수단 의사중상위원회는 정부군과 반군 충돌로 지금까지 민간인이 최소 56명 죽고 군인도 수십 명 전사했다고 발표했다. 민간인과 군인 부상자는 총 595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무력충돌은 정부군과 정부군이 반군으로 지칭한 신속지원군(RSF) 민병대와 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실상 군부 1, 2인자인 압델 파타 알-부르한 정

부군 장군과 모하메드 함단 다갈로 RSF 사령관의 권력 다툼이다.

정부군과 RSF는 2019년 함께 쿠데타를 일으켜 당시 독재자였던 오마르 알-바시르 대통령을 축출하고 정권을 탈환했다. 그러나 2021년 군부가 RSF를 뒤로한 채 다시 쿠데타를 일으키자 갈등은 극에 달했고 전날 새벽 교전을 촉발했다.

현재 정부군과 반군은 서로 대통령궁과 방송국, 육군 참모총장 관저와 하르툼 국제공항 등을 장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NPR통신은 하르툼에서 공군 전투기가 목표물을 공습하는 장면이 포착됐으며, 총격하는 군인과 주거지 인근을 달리는 장갑차, 대피하는 민간인이 도시에 뒤섞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영국, 인도 등 각국은 수단에 머무는 자국민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고대영 기자 kodae0@



日총리 폭발물 테러에 G7 경비 비상

일본 경찰들이 16일 주요7개국(G7)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는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경비를 서고 있다. 이번 회의는 16~18일 열린다. 전날 기사다 후미오 총리를 겨냥한 폭발물 테러 사건이 발생해 다음 달 G7 정상회의를 앞둔 일본이 비상에 걸렸다. 부상자가 나오지 않고 용의자도 바로 체포됐지만,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피살된 지 9개월 만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일본의 허술한 경비 체제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일본 경찰들이 16일 주요7개국(G7)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는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경비를 서고 있다. 이번 회의는 16~18일 열린다. 전날 기사다 후미오 총리를 겨냥한 폭발물 테러 사건이 발생해 다음 달 G7 정상회의를 앞둔 일본이 비상에 걸렸다. 부상자가 나오지 않고 용의자도 바로 체포됐지만,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피살된 지 9개월 만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일본의 허술한 경비 체제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가루이자와(일본)/AP연합뉴스

〈LG전자 사장〉

# 조주완 “통찰력·균형 감각 갖춰야 좋은 리더”

## ‘CEO 편톡’서 36년 경험 공유

“아무리 어려워도 답은 항상 고객에게 있다는 믿음으로 과감한 도전과 끊임없는 혁신을 만들어 가는 ‘담대한 낙관주의자’가 되자. 현재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행동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정해진다는 것을 잊지 말자.”

16일 LG전자에 따르면 조주완 LG전자 사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팀장들을 대상으로 ‘CEO F·U·N Talk’ (편톡)을 열고 ‘리더십’과 관련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이같이 밝혔다.

편톡은 조 사장이 취임한 후, 구성원들과 소통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으로 이번이 6번째다. 이날 팀장급 조직책임자 중 약 80%가 온·오프라인으로 소통했으며, 리더십에 관심 있는 구성원을 포함해 총 4000여 명이 참여했다.

조 사장은 편톡을 통해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 회사 경쟁력을 높이고 조직 문화를 혁신하기 위해선 팀 리더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사장은 “저는 입사를 위해 면접을 보

불확실성 시대에서 리더란 방향 제시하고 조직 움직여 성과를 창출해내는 역할 소통하는 조직문화는 필수

팀장서 임원이 되고 싶다면 상사 3명 진급시키고 후배 육성

러와서 당시 막 완공된 스마트 빌딩인 여의도 LG트윈타워를 보고서는 정말 말 그대로 반했다”며 “여기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열망처럼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6년간 스태프 현장을 두루 거쳐 CEO에 올랐고, 그간의 생각한 리더십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조 사장은 “리더는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결정을 내리며, 조직을 움직여 성과를 창출하는 사람”이라며 리더가 발휘한 리더십을 전략적 사고, 실행력, 소통과 조직문화로



조주완 LG전자 사장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LG트윈타워에서 열린 ‘CEO F·U·N Talk’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제공 LG전자

나누 설명했다.

그는 실행을 위해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질문하며, 집요하게 팔로 업하고 과정마다 책임을 분명히 하는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통과 조직문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소통은 문제를 드러내고 함께해

결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소통의 본질은 투명성과 진정성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 내 문제를 골치거리가 아니라 해결 가능한 보물로 바라보는 사고의 전환이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든다”고 덧붙였다.

이어 “좋은 결정을 내리는 리더는 호기심과 배움 그리고 외부의 의견까지 반영

한 균형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고객 경험 혁신을 위한 통찰력은 많은 호기심과 꾸준한 배움에서 나오며, 한쪽으로 치우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외부 시각까지 고려한 균형을 갖춰야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사장은 임원과 사원 사이에서 팀장의 역할에 대해서도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팀장에서 승진해 임원이 되는 방법에 대한 질문에 조 사장은 “예전부터 늘 하던 말이 있다. 3명의 상사를 진급시키고 진심으로 따르는 5명의 후배를 갖게 된다면 임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상사가 3명이나 진급했다면 본인의 역량이 뛰어난 것이고, 진심으로 따르는 후배가 5명이 있다면 리더십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번 아웃을 극복한 경험에 대해서는 “나도 번 아웃을 겪어본 적이 있다”며 “업무로든, 함께 일하는 사람과든, 극복하고 푸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보다 앞서 그렇게까지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스스로 관리하고 풀어나갈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다숨 기자 citizen@

## 7세대 그랜저인데, 뒷좌석 공간이 왜 다르죠?

구동방식 따라 센터 터널 유무 이륜은 평평, 사륜은 볼록 솟아

현대자동차에게 효자 모델인 준대형 세단 ‘그랜저’의 의미는 각별하다. 고급차를 지향해온 현대차의 브랜드 방향성을 담고 있는 상징적 모델임과 동시에 가장 잘 팔리는 ‘캐시카우’이기 때문이다.

역사상 가장 진보한 그랜저로 평가 받는 7세대 신형 그랜저는 운전자를 위한 ‘오너드리븐’은 물론 그 옛날 1~2세대 그랜저가 그랬던 것처럼 ‘소퍼드리븐(뒷자리 오너용)’의 역할도 충직하게 해낸다.

다만 여기에서 현대차가 직접 힘줘 말하지 않은 속도도 존재한다. 그랜저는 앞바퀴만 구동하는 2WD(Wheel Drive)와 네바퀴 모두를 굴릴 수 있는 AWD(All wheel drive)가로 나뉜다. 이런 굴림 방식에 따라 뒷자리 공간에서 차이가 난다.

내연기관 AWD의 경우 차 바닥을 가로지르는 ‘드라이브 샤프트’가 필요하다. 앞쪽에 얽힌 엔진의 회전력을 뒷바퀴로 전달하는, 철봉 모양의 회전축



현대차 7세대 신형 그랜저 2WD 모델(왼쪽)과 AWD 모델의 2열 센터 터널 모습. 이투데이DB

이다. 이 드라이브 샤프트 탓에 AWD 승용차는 2열 바닥이 ‘볼록’ 솟아 있다. 이른바 ‘센터 터널’이다.

반면 2WD의 경우 이런 모양의 구동축 자체가 없다. 덕분에 신형 그랜저 2WD 모델의 경우 뒷좌석 바닥이 ‘평평함’에 가깝다. 즉 AWD를 고르면 2열 레그룸이 비좁고, 2WD를 선택하면 넉넉한 뒷자리를 얻을 수 있다.

현대차와 경쟁하는 대중차 브랜드가 굴림방식(2WD와 AWD)에 따라 2가지의 언더패널, 즉 차바닥을 만들었다는 점은 꽤 이례적이다.

차바닥을 2종류로 만드는 건 철판을 강한 힘으로 눌러 원하는 형상을 만드

는 ‘프레스 기계’가 하나 더 필요하다 는 의미다. 같은 모양의 부품을 대량으로 주문하면 단가는 내려간다. 그러나 모양이 서로 다른 2가지 부품을 발주하면 부품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 현대차는 생산원가가 더 많이 드는 후자를 택했다. 언뜻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글로벌 주요 완성차 제조사 가운데 구동 방식에 맞춰 ‘언더패널’ 즉 차바닥을 각각 생산하는 차회사는 없다. 일부 프리미엄 브랜드가 시도했을 뿐, 현대차처럼 대중차 회사라면 비용 절감 차원에서 항상 한 가지 언더패널을 쓴다. 김준형 기자 junior@

## 삼성전자 네오 QLED, 英 탄소저감인증 획득

2023년형 신제품 6개 모델

삼성전자는 2023년형 삼성네오 QLED <사진> 신제품 6개 모델이 영국 ‘카본 트러스트’로부터 ‘탄소 발자국-탄소저감인증(Reducing CO2)’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카본 트러스트는 영국 정부가 기후 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설립한 인증 기관이다. 제품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국제 기준에 따라 평가해 탄소 발자국 인증을 수여한다.

삼성전자는 2021년 네오 QLED로 4K 이상 해상도를 가진 TV 최초로 해당 인증을 받은 데 이어 지난해에는 QLED·크리스탈 UHD·라이프스타일 TV를 포함한 TV 11개 모델과 모니터·사이니지 5개 모델까지 총 16개 모델에 대해 탄소 발자국 인증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OLED를 포함해 올해 총 20개 이상 모델에 대해 탄소 발자국 인증 획득을 목표로, 대상 제품군과 규모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용석우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부사장은 “삼성전자는 글로벌 TV 시장을 견인하는 기술적 혁신을 넘어, 제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친환경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여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다양한 변화들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다숨 기자 citizen@

## 구광모 “상속세 일부 과다”... 국세청에 소송

작년 9월 모친·두 여동생과 함께 용산세무서에 부과처분취소 소송



고가 재판을 이겨 얻고자 하는 금액)는 1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LG 측은 “구 전 회장 상속재산 가운데 LG CNS 지분

구광모(사진) LG 회장이 지난해 9월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상속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 측은 상속세를 내는 과정에서 세무당국으로부터 일부 금액에 대해 추가 부과됐다고 보고 법률적인 판단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회장 측은 고 구분부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지분까지 평가와 관련해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 사건의 원고소가(원

에 대한 주식가치 평가방법과 관련해 의견 차이가 있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 5월 별세한 구 전 회장은(주)LG 주식 11.28%를 비롯해 총 2조 원 규모의 유산을 남겼다. (주)LG 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은 구 회장이, 김 여사와 두 여동생은(주)LG 주식 일부와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 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이다숨 기자 citizen@

## 현대차, 상하이모터쇼서 ‘더 뉴 엘란트라 N’ 공개

기아 中전략형 EV5 등 33대 전시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2023 상하이 국제모터쇼’에 참가해 다양한 차종을 선보인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2023 상하이 국제모터쇼’는 18일 언론 공개 행사를 시작으로 27일까지 열린다.

현대차 그룹에 따르면 현대차는 이번 상하이 국제모터쇼에 2160㎡(약 653평)

규모 전시관을 꾸려 신차와 양산차 등 총 20대를 전시한다.

구체적으로 수소연료전지차인 중국형 넥쏘와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6, 중국형 투싼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3종을 전시한다. 고성능 차인 N 브랜드인 더 뉴 엘란트라(아반떼) N 디자인을 세계 최초로 공개하고, 고성능 전기차 RN22E와 수소 하이브리드 N 비전 74, 중국형 투싼 N 라인 등도 전시한다.

양산차도 8대 출품한다. 중국형 쏘나타와 아반떼(엘란트라) 등 현지 맞춤형 모델을 공개한다. 이외 수소연료전지시스템과 E-GMP, HTWO 디오라마 등 친환경차 기술력에 대해서도 선보인다.

기아는 2025㎡(약 613평)의 전시 공간에 콘셉트카와 신차, 양산차 등 총 13개를 전시한다.

중국 전략형 전용 전기차 EV5와 내년 중국 출시 예정인 플래그십 전기 SUV EV9의 콘셉트카를 공개한다. 올해 중국에서 출시하는 고성능차 EV6 GT 등 신차도 선보인다. 이다숨 기자 citizen@



IBK 기업은행

편함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 이 세상에 작은 기업은 없다

누군가는 기업에서

꿈을 시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도 합니다.

가슴이픈 실패에 울고,

보람듯 웃으며 이겨내고

이 순간도 누군가는 기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업에는 수많은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한다는 건 크고 막중한 일입니다

# ‘잠’ 연구 산실·문화공간 한 곳에… MZ세대 힙플로

## 탐방기UP

경기이천의 랜드마크  
시몬스 테라스·팩토리움

경기도 ‘이천’. 통상 쌀과 도자기 같은 특산품을 떠올리게 하는 이 지역에 최근 MZ세대의 방문이 유독 잦다.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누적 게시물만 10만 7000여 건. 크리스마스 주말 이틀 방문객이 약 3만 명에 육박하는 곳. 이천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은 힙플레이스(hip place, 개성 있는 명소), ‘시몬스 테라스’다.

2018년 이천 모가면에 조성된 시몬스 테라스는 아트 전시관인 ‘라운지’, 브랜드 뮤지엄 ‘헤리티지 엘리’, 체험 공간 ‘매트리스 랩’, 시몬스 전 제품을 한 자리에 전시한 ‘테라스스토어’, 뷰티레스트 블랙쇼룸인 ‘호텔’, 식료품 편집숍 ‘퍼블릭마켓’ 등으로 구성된다. 복합문화공간이자 ‘잠’에 대한 시몬스의 고민과 연구의

침대 제작에 쓴 바늘·천 등 전시 특산품 판매… 유명 작품 곳곳에 인생샷 남기려는 MZ세대 성지 오픈 4년만에 60만명 이상 찾아

흔적이 엿보이는 공간이다.

헤리티지 엘리는 창업자 켈 문 시몬스의 창립 초기 침대 공방인 아틀리에가 전시돼 있다. 시몬스의 역사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영상 기록과 잡지, 100년이 넘는 초창기 침대 프레임과 매트리스, 시몬스 침대 제작에 활용된 바늘과 재봉틀, 천 등 옛 도구들이 곳곳에 전시돼 있다. ‘퀸’과 ‘킹’ 등 지금의 침대 사이즈 개념을 처음으로 고안해 낸 게 시몬스인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아이들을 위한 침대 문화 및 역사 교육에도 손색이 없다. 뷰티레스트 블랙 라인이 전시된 쇼룸 호텔 앞은 겨울이면 초대형 트리 전시와 일루미네이션 점등 행사가 열린다. 연말감성 인생샷을 남기려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시몬스 테라스 일루미네이션은 연말이면 인생샷을 남기려는 젊은이들로 붐빈다(왼쪽 사진). 뮤지엄 ‘헤리티지 엘리’에 전시된 창업자 켈 문 시몬스의 창립 초기 아틀리에.



뮤지엄 ‘헤리티지 엘리’에 전시된 창업자 켈 문 시몬스의 창립 초기 아틀리에.

는 젊은이들이 몰리는 이유다. 호텔 옆에는 퍼블릭마켓이 자리잡고 있다. 시몬스가 대전의 인기 식료품 편집숍인 퍼블릭마켓과 손잡고 문을 열었다. 예 산 유기농 와이드 루플라와 멜론 등 충청도에서 나고 자란 농·특산품을 선보인다. 시몬스 테라스에선 ‘파머스마켓’ 같은 지

역 상생 직거래장터도 열린다. 파머스마켓은 이전지역 농가가 재배한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직거래장터다. 시몬스 측은 “시몬스 테라스는 시몬스 스타일을 느낄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지만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을 위한 ESG 산실”이라고 강조했다. 시몬스 테라스는 2018년 오픈 뒤 4년만인 작년 9월 누적 방문객 수 60만 명을 돌파했다.

시몬스 테라스에선 프랑스 출신의 세계적인 비주얼 아티스트 ‘장 줄리앙’의 그림을 곳곳에서 찾는 재미가 있다. 장 줄리앙은 2018년 9월 시몬스 테라스 오픈에 맞춰 테라스에서 전시를 진행했다. 2층 헤리티지 엘리 아카이브존 내 부영이 일러스트 2점, 1층 매트리스랩에서 지하 1층 테라스 매장으로 연결되는 곳에 그려진 강아지 일러스트, 지하 1층 시몬스 테라스 스토어 엘리베이터 도어 위에 1점 등 총 8점이 숨겨져 있다.

북유럽풍 건물이 모인 테라스에서 조금

더 발길을 옮기면 시몬스 침대의 심장인 시몬스 팩토리움이 나온다. 붉은색 벽돌에 흰색의 ‘SIMMONS’가 큼지막하게 쓰여진 거대한 팩토리움은 2017년 7만 4505㎡(2만2538평) 규모로 조성됐다. 세계 최고 수준의 수면 연구개발(R&D) 시설과 자체 생산라인이 갖춰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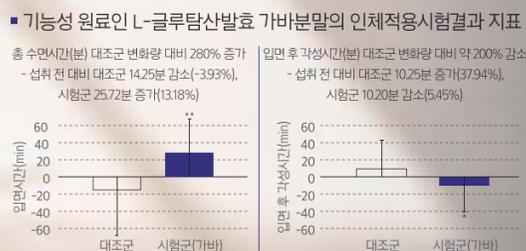
롤링 테스트기를 비롯해 낙하충격 측정기, 프레임내구성 시험기, 라돈 측정, 수면자 뇌파 측정, 매트리스 경도 테스트 등 다양한 장비들이 갖춰져 있다. 롤링 테스트는 최대 140kg 무게의 6각 원통형 롤러가 분당 15회의 속도로 10만 번 이상 구른다. 시몬스의 매트리스 제품은 이곳에서 원단과 스프링 등 내구성 테스트를 거친 뒤 세상에 나온다. 건물 2층 전망타워의 통유리창으로 시몬스의 침대 생산공장도 한눈에 볼 수 있다. 환기 시스템으로 먼지 날림이 거의 없는 이 곳에선 하루 평균 600~700개의 매트리가 생산된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 좋은 건강은 좋은 잠으로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면의 질 개선 가능성을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바이탈뷰티 굿슬립가바 365’로 달콤한 꿀잠, 개운한 아침을 만나보세요.

### 아모레퍼시픽이 만든 수면 건강기능식품



\* 출처 : 유산균 발효 GABA(γ-Aminobutyric acid) 분말의 경증 단기 수면장애를 겪는 사람에서 수면의 질 개선 효과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placebo 대조 병행 설계인체적용시험 / 시험번호 : AP-V-2018-01 (시험기관 :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신경과) / 섭취대상 : 수면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 \*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식약처로부터 2중 기능성을 인정받은 맞춤 배합!

L-글루탐산발효 가바분말 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나이아신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 굿슬립가바 365, ‘가바’란 무엇인가요?

아모레퍼시픽은 뇌 조직의 수면 관련 물질, 가바(GABA, gamma-aminobutyric acid)를 연구하여 외부에서 보충할 경우 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L-글루탐산 발효 가바분말은 유산균 발효를 통해 수면과 관련된 가바와 동일한 구조로 제조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면의 질 기능성을 인정받아 매일 꾸준히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습니다.

### L-글루탐산발효 가바분말이 특별한 이유!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인 L-글루탐산발효 가바분말의 인체적용시험 결과 총 7가지 지표 [수면 효율/수면 잠복기/총 수면 시간/비렘수면 3단계/총 각성시간/입면 후 각성/피츠버그 수면의 질 평가 설문지의 총점 및 세부항목(수면 잠복기 변화량 평소의 수면 효율)]에서 유의적 개선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VITALBEAUTIE

\* 제조원 및 유통권면역: (주)아모레퍼시픽  
\*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본 제품은 주요 온라인몰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 불황·비수기에도 빛난 LED 서울바이오시스, 실적 선방

### 매출 1112억… R&D 투자 성과

초소형발광다이오드(LED) 제조기업 서울바이오시스가 업황 침체와 비수기에에도 1분기를 선방했다. 지난해 디스플레이 산업의 위축에도 기술개발과 적극적인 글로벌 마케팅, 영업에 따른 것이라 분석이다.

16일 본지 취재 결과 서울바이오시스는 1분기 매출액이 1112억 원으로 가이던스(내부 전망치)를 웃돌았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6.3% 증가했다. 회사 가이던스는 1000억~1100억 원이었다.

LED 사업에서 보통 1분기는 비수기로 통하지만, 회사의 매출 확대를 위한 노력이 효과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

최은호 서울바이오시스 상무는 “전방산업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연구개발(R&D) 투자와 적극적인 글로벌 마케팅, 영업활동에 집중한 결과”라며 “회사는 지속적인 원가절감 및 비용 절감 노력으로 영업이익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디스플레이 산업 침체를 극복했다는 평가다.

서울바이오시스는 연간 매출액은 2020년 4312억 원, 2021년 4886억 원으로 상승해오다 지난해 4387억 원으로 감소했다. 영업이익도 200억 원 이상을 유

지하다 적자 전환했다. 시장의 침체와 무수익 자산의 손실처리가 원인이다.

서울바이오시스는 고휘도 LED 칩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응용 분야는 휴대기기용 LED를 비롯해 전광판, 교통신호등용 LED, 중소형 액정표시장치(LCD) 백라이트, LCD TV용 백라이트, 자동차용 대시보드등, 실내등, 방향지시등, 전조등, 건물외광등, 비상등 등 다양하다.

서울바이오시스는 총 4000여 개의 특허를 기반으로 순수 LED 칩을 생산해 글로벌 상위권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자외선(UV) LED 분야에선 세계 1위 업체로 평가된다. LED 전문 시장조사기관인 오피디아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UV LED 매출액 기준 글로벌 시장 순위 집계에서 서울바이오시스가 1위(18.7%)로 조사됐다.

당분간 디스플레이 산업은 축소될 전망이다. 시장조사기관 DSCC는 올해 글로벌 디스플레이 설비 투자 규모가 38억 달러(약 4조8000억 원)로, 201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마이크로 LED의 상용화가 시작되면서 서울바이오시스도 같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바이오시스도 이런 추세에 대비하기 위해 신규 사업의 방향으로 마이크로 LED 양산 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다.

김우람 기자 hura@

# EU '미카' 표결 임박... 세계 첫 가상자산 규제법 나오나

유럽연합(EU)이 이번 주 가상자산을 규율하는 미카(MiCA: Markets in Crypto Assets) 법안에 최종 표결을 할 전망이다. 가상자산을 다룬 주요국의 첫 단독 법안인 만큼,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미국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오는 19일(현지시간) 법안 논의를 위한 토론을 거친 다음, 20일 최종 표결에 나선다. 당초 계획보다 하루 미뤄진 일정인데, 코인데스크는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당초 논의한 법안 내용에 큰 변화 없이 일정이 하루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미카는 가상자산을 규율하는 주요국의 첫 단독 법안이다. 거래소 같은 가상자산

사업자 자격요건·고객신원 확인 자금세탁방지 등 각종 규율 담겨 19일 논의 거쳐 20일 최종 표결 가상자산 첫 단독법... 각국 촉각

사업자의 자격요건과 라이선스의무화 규정과 함께 고객 신원 확인 의무화, 자금세탁방지 및 시장 관리·감독 규정 등이 담겨 있다. 블록체인 산업 육성 및 혁신이 저해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용이 중심이다.

EU는 이미 지난해 6월 미카 최종안에 합의했으며, 지난 몇 달간 각 회원국 연



로 법안 작성과 번역, 내용에 대한 추가 변경 제안을 모두 거쳤다. 이제 최종 표결만을 남겨놓은 가운데, 관련 내용에 대해 EU 이사회의 의원들과 유럽연합 회원국 대부분 해당 법안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카가 통과되면 세계각국의 가상자산 규제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금융위·금감원·한국은행 등 우리 금융당국도 유럽의 미카 제정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은 지난해 MiCA 법안의 주요 내용을 번역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미카 법안에 담긴 규제가 더 엄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유럽 중앙은행 감독위원회 위원인 엘리자베스 맥콜(Elizabeth McCaul)은 이달 초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MiCA와 같은 규제 시도가 최근 복잡한 글로벌 시장 생태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본사 위치가 불분명한 바이낸스를 예로 들며, "물리적 경계가 없는 회사를 어떻게 감독할 수 있냐"면서 "어떤 관할 국가도 기업이 법적 지위와 사업 책임자를 밝히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유럽의회 의원 중 여전히 가상자산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 인물도 있다. 유럽의회 의원이자 전 벨기에 재무장관인 요한 반 오르벨트(Johan van Overtveldt)는 지난달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정부가 마약을 금지한다면 가상자산을 금지해야 한다"면서 "가상자산은 투기적이며 경제적·사회적 부가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 페이코인, 원화거래소서 퇴출

재판부, 상폐무효 가처분 신청 기각 투자자들 내달 14일까지 지갑 옮겨야

페이코인 운영사 페이프로토콜이 빗썸을 상대로 낸 거래 지원 종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로써 페이코인은 빗썸을 포함한 업비트·코인원 등 국내 원화 거래소에서 퇴출이 확정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는 지난 8일 페이코인 측이 빗썸을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가 페이코인 해외 영업의 성과와 실체가 없다는 빗썸 측 주장에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에서 빗썸 측 변호인은 페이코인을 두고 "국내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니 그제야 부랴부랴 해외 영업을 하겠다"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은 바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사업자 변경 신청 불수리 처분이 부당하다고 페이코인 측에서 주장한 내용은 판결문에 담기지 않았다.

페이프로토콜과 빗썸 양측은 법원의 결정에 존중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상장 폐지 직전에서야 결과가 나온 걸 보면 재판부가 마지막까지 결정을 고심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특금법상에서 필수요건인 실명 계좌 도입이 필요하다고 FIU에서 못 박은 것이기 때문에 이를 뒤집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페이코인은 14일 오후 3시 정각 빗썸과 업비트에서 거래 지원이 종료됐다. 코인

원에서는 오후 4시부터 거래 지원이 종료됐다. 투자자들은 5월 14일까지 보유한 페이코인을 개인 지갑 혹은 해외 거래소로 이동해야 한다.

페이코인으로는 해외 결제 서비스 사업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게 됐다. 페이프로토콜은 현재 싱가포르와 일본, UAE는 물론 추가로 3~4개 국가의 현지 기업들과 페이코인 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의 중이다. 사업 구조 변화에 따라 부서 조직 개편도 일부 진행했다. 페이코인 측은 "해외 결제 가속화와 국내 사업모델 변경에 따른 로드맵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해외 거래소 추가 상장을 통해 투자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유리 기자 inglass@ 이시은 기자 zion0304@



LG유플러스 관계자가 LG 스마트TV 'LG 채널'을 통해 FAST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제공 LG유플러스

## LG U+, LG 스마트TV에 무료채널 론칭

18개 무료방송 'FAST 채널'

LG유플러스는 LG전자 스마트TV에서 가입한 통신사에 관계없이 영상 콘텐츠를 볼 수 있는 'FAST 채널'을 론칭했다고 16일 밝혔다.

FAST(Free Ad-supported Streaming TV)란 개방형 OS가 탑재된 스마트TV를 통해 구독요금이나 수신료 없이 미디어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서비스를 뜻한다. IPTV,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OTT와는 달리 스마트TV와 인터넷만 있다면 광고를 시청하면서 원하는 영상 콘텐츠를 마음껏 볼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LG유플러스는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놀이 플랫폼, 키즈 플랫폼, Web3 플랫폼 등 '4대 플랫폼' 사업의 일환으로 콘텐츠 전담 사업조직을 만들고 자체 콘텐츠 제작에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IPTV 외에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는 FAST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LG유플러스는 증가하는 국내 스마트TV 사용자들을 위해 LG전자와 협력해 지난해부터 FAST 채널을 기획 및 플랫폼을 구축했다.

LG유플러스는 국내 FAST채널에서 제공한 적 없는 실시간 채널과 LG유플러스만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차별화된 콘텐츠 라인업을 갖추고자 노력했다. LG webOS로 구동되는 LG 스마트TV에서는 △실시간 채널 5종 △U+ 오리지널 콘텐츠와 차별적인 콘텐츠를 큐레이션해 제공하는 채널(아이들나라, U+홈트, U+Stage, 더트래블, 더엔터, 더스토리) 등 18개 FAST 채널을 볼 수 있다.

조성준 기자 tiatio@

## 네이버제트 "제페토월드서 파리지앵 도전해보세요"

글로벌 브랜드 '아미 파리스' 제휴 월드·패션아이템 15종 독점 출시

네이버제트는 글로벌 패션 브랜드 '아미 파리스(Ami Paris)'와 파트너십을 맺고 제페토에서 다양한 패션 아이템을 독점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용자들은 제페토에서 아미 파리스의 버추얼 아이템을 스토어를 만나 볼 수 있다. 우선 제페토는 아미 파리스의 2023 S/S 신상품 15종을 구현해 아이템으로 정식 공개한다. 또 파리의 상징적인 지역 몽마르트르에서 영감



을 받아 몽마르트르 사크레 코르 성당, 카페, 베이커리 등을 구현한 아미 파리스 월드도 함께 오픈한다. 이에 따라 아미 파리스의 아이덴티티가 담

긴 월드에 방문하고 직접 아이템을 착용하는 등의 디지털 경험을 전 세계 이용자와 활발히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페토는 글로벌 패션 브랜드의 대표적인 협업 파트너로 뜨거운 러브콜을 받고 있다. 패션 브랜드 상품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가상 공간에 그대로 구현할 수 있어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높은 광고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제페토가 4억 명 이상의 글로벌 유저를 확보하고 있으며, 패션에 높은 관심을 표하는 MZ 세대가 주된 이용자라는 점도 강점이다.

조성준 기자 tiatio@

## '정보보호 신속확인' 인증 제품 첫 출시

에프원시큐리티 개발 '웹방화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호스트 기반 웹방화벽(F1-WEBCastle V2022.07)을 신속확인제품으로 첫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는 인증을 획득하기 어려웠던 신기술 및 융·복합제품을 대상으로 국가·공공기관에 도입이 가능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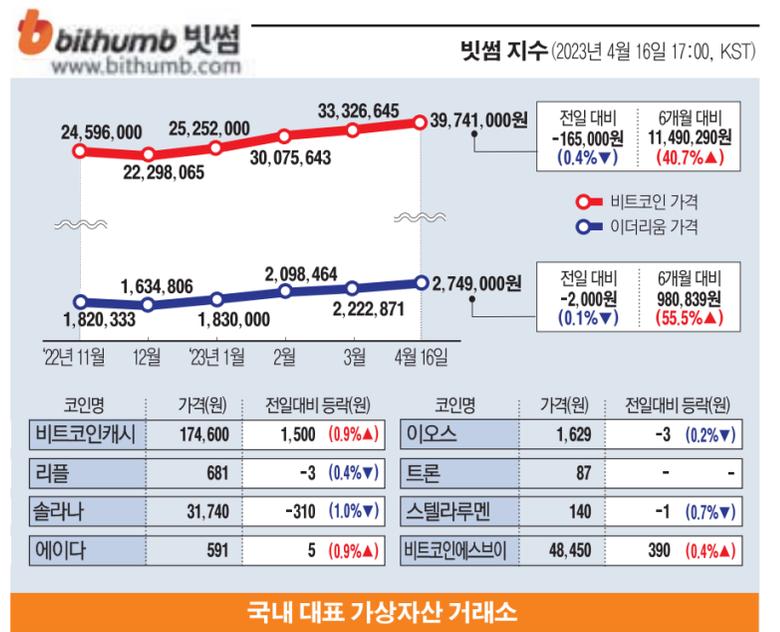
도록 보안성과 기능 적합성 등을 점검하는 제도다. 14일 신속확인심의위원회는 제도 시행 이후 첫 상정된 제품에 대해 보안성과 기능을 심의하여 '적합'으로 판정했다. 신속확인 통과 제품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년 동안 효력이 인정된다.

에프원시큐리티가 개발한 웹방화벽은 보호 대상인 각 웹서버에 소프트웨어 형태로 설치돼 서버별로 보안정책을 설정할

수 있는 침입차단제품군이다. 이 제품은 외부와 보호 대상(서버) 사이에 설치되는 네트워크 기반 운영환경과 달리 보호 대상 서버별로 설치되는 호스트 기반의 환경이라는 점에서 기존 보안 인증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과기정통부는 신속확인 제품이 공공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수요처 대상으로 신속확인제품 안내, 정부 지원사업 연계 등 다양한 후속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조성준 기자 tiatio@



**미아역 엘리프 개요** ※ 출처: 청약홈

위치	서울 강북구 미아동
가구수	260가구(민간 226가구, 공공임대 34가구)
분양가	- 전용 84㎡형: 11억4263만원 - 전용 74㎡형: 9억6204만~9억7041만원 - 전용 59㎡형: 7억6523만~7억9356만원 - 전용 49㎡형: 6억3143만원
분양 일정	특별공급: 24일, 1순위: 25일, 2순위: 26일 당첨자 발표: 1단지 5월 4일, 2단지 5월 3일



〈전용면적 84㎡형〉

# 서울 미아 국민평형 11억대 분양 “청약 혼풍” vs “규제 완화 역효과”

## 고분양가에 갑론을박

서울 강북구 미아역 인근 단지가 3.3㎡(평)당 3000만 원 이상의 분양가를 책정해 업계의 시선이 쏠린다. 최근 서울 청약 시장이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지만, 여전히 집값 하락이 이어지고 거시경제 침체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강북구 분양 단지에 강남과 마포구 등 핵심지역 수준의 분양가 격이 적용되자 청약 대기자들 사이에선 “너무 비싸다”는 불멘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주택 매수세가 살아난 데다 최근 인건비와 건설 자재값이 급등한 만큼 건설사로서 손실 부담 회피를 위해 고분양가를 고수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팽팽하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계룡건설이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짓는 주상복합아파트 ‘미아역 엘리프’ 분양가는 전용면적 84㎡형 기준 11억4263만원으로 책정됐다. 전용 59㎡형은 7억6523만~7억9356만 원, 전용 74㎡형은 9억6204만~9억7041만 원이다. 가장 작은 분양 면적인 전용 49㎡형은 6억3143만원이다. 전용 84㎡형 기준으로 발코니 확장비(2790만 원)와 각종 옵션을 더하면 분양가는 12억 원에 육박한다.

이는 최근 강북구에 공급된 단지 중 가

## 영등포 자이 등 연타석 흥행에 계룡건설 엘리프, 마포 수준 책정 건설사 “인건비·원자재값 급등” 대기수요자 “너무 비싸” 불멘소리

장 높은 수준의 분양가다.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전용 84㎡형 분양가 12억~13억 원에 맞먹는다. 지난 4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동대문구 ‘휘경자이 디센시아’는 전용 84㎡형 기준 최고 9억7600만원, 전용 59㎡형은 최고 7억7700만원으로 미아역 엘리프보다 저렴하다.

주변 단지 시세와 비교한 분양가도 높은 편이다. 1992년 지어진 미아동 ‘미아현대’ 전용 84㎡형 매도 호가는 7억 원 선에 형성됐다. ‘미아래미안’ 전용 84㎡형도 이날 기준 8억9000만~9억7000만원 수준이다. 강북구 D공인 관계자는 “미아역 엘리프는 초역세권이라 인근 시세보다 비싼 건 당연하다”며 “전용 59㎡형은 모르겠지만, 전용 84㎡형은 확실히 고분양가라 완판이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이런 고분양가 책정은 지난달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청약 혼풍 이어지는 데다 중도금 대출 제한과 민영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전매제한이 모두 풀린 영향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여기에 미분양으로 이어지더라도, 인건비와 건설 원자재값이 치솟아 당장 분양가를 낮추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진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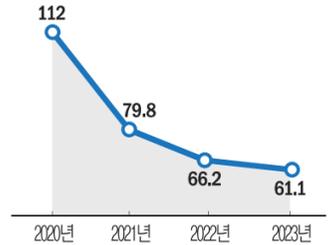
실제로 잇따른 규제 완화에 서울 청약 시장은 연타석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영등포구 ‘영등포자이 디그니티’는 1순위 청약에 98가구 모집에 1만9478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198.8대에 달했다. 또 은평구에서 공급된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 역시 평균 11.4대 1로 1순위 마감됐다. 이달 분양한 휘경자이 디센시아 역시 총 329가구 모집에 1만7013명이 청약 동장을 던져 평균 51.7대 1로 1순위 접수만 진행했다. 이 밖에 부동산개발사업의 특성상 분양가 인허가 어려워 중도금 이자 지원 등의 간접 인센티브를 통해 분양률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최근 건설비용이 올라 건설사 입장에서 어떻게든 분양가를 높여 받으려고 할 수밖에 없다”며 “미아역 엘리프가 완판이나 준수한 성적을 거두면 앞으로 분양할 다른 단지도 분양가를 대폭 올려 받을 가능성이 크다. 서울 분양가 전망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 1분기 해외수주 3년째 감소 대형 건설사는 ‘수주 양극화’

亞 수주액 작년 대비 65% 줄어 롯데 14억弗→0.6억弗 급감 현대건설·포스코·HDC 무실적

1분기 해외건설 수주액 (단위: 억달러)



※ 출처: 해외건설협회

정부가 해외건설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 기업의 1분기 수주 실적이 전년 대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는 수주 양극화도 일어나고 있다.

16일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해외건설 공사 건수와 수주액은 각각 156건, 61억787만 달러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실적(165건, 66억1890만 달러)과 비교하면 공사 건수는 3.6%, 수주액은 7.7% 각각 감소한 수치다.

1분기 기준 해외건설 수주액은 △2020년 111억9673만 달러 △2021년 79억7594만 달러 △2022년 66억1890만 달러 △2023년 61억787만 달러 등 3년 연속 떨어지고 있다.

올해 1분기는 수주 텃밭으로 불리는 중동에서 성과가 크게 나타났다. 중동 수주 건수는 9건, 수주액은 12억4354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수주액 3억2068만 달러 대비 약 4배 늘어난 수치다. 지역별로 △리비아 7억9300만 달러 △사우디아라비아 3억353만 달러 △아랍에미리트 1억546만 달러 순으로 많았다.

태평양·북미 지역도 지난해 1분기 1354만 달러(13건)에서 올해 22억4924만 달러(26건)로, 수주고가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아프리카는 6181만 달러(18건)에서 6억3338만 달러(9건)로, 중남미 지역은 6489만 달러(22건)에서 8417만 달러(10건)로 각각 늘었다.

반면 지난해 선방했던 아시아 지역에서는 수주액이 급감했다. 1분기 아시아 공사 건수는 81건으로 전년 96건 대비 약 15% 감소했다. 같은 기간 공사액도 49억5312만 달러에서 18

억807만 달러로 65% 줄었다. 특히 국토부가 직접 방문할 정도로 신경 썼던 인도네시아에서는 수주액이 지난해 21억9845만 달러에서 올해 1억240만 달러로 저조했다.

10대 대형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수주액 양극화도 커지는 모양새다. 올해 1분기 해외건설 수주액 중 삼성물산(23억3709만 달러)과 대우건설(13억9256만 달러)이 차지하는 비중이 61.06%로, 과반을 차지했다. 특히 대우건설은 나이지리아 ‘카두나 정유시설 긴급보수 공사’ (5억8918만 달러), 파푸아뉴기니 ‘액화천연가스(LNG) 기본설계(FEED) 작업’ (244만 달러) 등 굵직한 사업들을 수주했다.

반면 지난해 1분기 수주 14억1723만 달러를 기록했던 롯데건설은 올해 1분기 5831만 달러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현대엔지니어링은 7억6594만 달러에서 3478만 달러로, 현대건설은 3억2723만 달러에서 7177만 달러로 각각 감소했다. 포스코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은 1분기 내 수주한 공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해외수주 특성상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대형 프로젝트 몇 개만 수주해도 수주액은 많이 늘어난다. 1분기 실적이 지난해보다 감소했지만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면서도 “목표치 35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남은 기간 실적을 더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용 기자 pmw7001@

## 금주의 분양캘린더

4월 셋째 주에는 전국 6319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4월 셋째 주에는 전국 10개 단지에서 6319가구(일반분양 4241가

구)가 분양한다. 경기 화성시 신동 ‘동탄신도시 금강펜테리움 6차 센트럴파크’, 인천 서구 원당동 ‘칸타빌 더 스위트’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총 6개 단지에서 청약당첨자를 발표한다. 경기 화성시 신동 ‘동탄파크리크스’는

19일 당첨자를 가린다. 경기 파주시 목동동 ‘파주 운정 디에트르 센트럴’은 20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계약 진행단지는 총 11곳이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역 푸르지오 더원’은 19일까지 계약을 받는다.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4/17 (월)	계약	경기	성남시	북정동	성남북정1A2(신호희망타운) (~4/21)	4/19 (수)	접수	충북	청주시	개신동	청주동일하이빌파크래인 2순위													
					성남북정1A3(신호희망타운) (~4/21)						충북	청주시	송절동	청주테크노폴리스힐데스하임 1순위										
					평택시						현덕면	평택화양서희스타힐스센트럴파크 (~4/19)	계약	경기	화성시	신동	동탄파크리크스							
					인천						서구	오류동					왕길역금호어울림에듀그린 (~4/19)	전남	광양시	광양읍	광양목성파크부영A1(민간임대) (~4/21)			
					부산						남구	우암동					두산위브더제니스오션시티 (~4/21)				광양목성파크부영A2(민간임대) (~4/21)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역푸르지오더원 (~4/19)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이노와이즈신촌 ♣ (~4/21)
					경남						거제시	연초면					거제해내시온숲속의아침부 (~4/19)							경기
경기	부천시	괴안동	이안시그니처역곡 1순위	충북	청주시	송절동	청주테크노폴리스힐데스하임 2순위																	
4/18 (화)	접수	경기	화성시				신동	동탄신도시금강펜테리움6차센트럴파크 1순위	4/20 (목)	발표	경기	고양시	장항동	고양장항A4신호희망타운(행복주택)										
				인천	서구	원당동		칸타빌더스위트 1순위						경기	고양시	장항동	고양장항A5신호희망타운(행복주택)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대성베르힐 1순위									경기	파주시	목동동	파주운정디에트르센트럴				
				광주	광산구	쌍암동		벨루미체담단 1순위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해링턴플레이스다산파크				
				충북	청주시	개신동		청주동일하이빌파크래인 1순위									경기	안성시	공도읍	해링턴플레이스진사1(1BL)				
				발표	광주	남구		봉선동						e편한세상봉선셀레스티지	4/21 (금)	오픈				경기	안성시	공도읍	해링턴플레이스진사2(2BL)	
계약	경남	창원시	명곡동	창원명곡A2(행복주택) (~4/21)	경기	용인시	마북동	e편한세상용인역플랫폼시티																
4/19 (수)	접수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다산역자연&푸르지오(공공임대) 1순위	4/22 (토)	발표	전북	전주시	금암동	전주대리수글로벌에듀(민간임대)										
					경기	부천시	괴안동	이안시그니처역곡 2순위						4/23 (일)	계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휘경자이디센시아 (~4/25)					
					경기	화성시	신동	동탄신도시금강펜테리움6차센트럴파크 2순위											(주1)♣=도시형 (주2)1순위 청약접수 및 견본주택 오픈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3)오픈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부동산R114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우미리리버포레AB9(민간임대) (~4/20)						경기	부천시	괴안동	에코델타시티대성베르힐 2순위							
					인천	서구	원당동	칸타빌더스위트 2순위										광주	광산구	쌍암동	벨루미체담단 2순위			
					광주	광산구	쌍암동	벨루미체담단 2순위																

## 포스코이앤씨, 올해 리모델링 수주 1조 돌파

### 평촌 향촌 롯데3차·현대4차 수주 강남·송파·부천도 수주 '가시권'

포스코이앤씨가 올해 건설사 최초로 리모델링 사업 수주금액 1조 원을 기록했다.

포스코이앤씨는 15일 개최된 평촌신도시 향촌마을 롯데 3차와 현대 4차 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시공사선정 총회에서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향촌마을 롯데 3차아파트는 기존 530가구에서 609가구(신축 79가구)로, 향촌마을 현대 4차아파트는 기존 552가구에서 628가구(신축 76가구)로 리모델링된다. 수평 및 벌동 증축을 통해 리모델링되며 총 수주금액은 5140억 원이다.

포스코이앤씨는 1월 평촌 초원 세경(2446억 원), 2월 부산 해운대 상록(3889억 원)에 이어 이번에 평촌향촌롯데 3차, 현대 4차를 같은 날 수주함으로써 리모델링 사업에서만 1조1475억 원의 수주 실적을 기록하게 됐다. 향후 서울 강남, 송파권과 1기 신도시인 부천 중동 등에서도 연이은 리모델링 수주를 앞두고 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주거용 건축물의 노후화가 날로 심각해지는 현실에서, 리모델링은 이를 조기에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중 중요한 수단”이라며 “건물이 안전할 때,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리뉴얼해서 삶의 질을 조기에 개선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니즈에 부응해 친환경적으로 주거의 노후화를 해결하는데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용 기자 pmw7001@

Class가다른 상위0.1%를 위한 브랜드



# 세계 초일류 기술 골프채 부문

- ① 고반발 기술 1위 → C.O.R 0.962 초격차
- ② 경량화 기술 1위 → 드라이버 205g 30% ↓
- ③ 최적화 기술 1위 → 12,312,000가지 스펙 초격차  
세계적인 프로처럼 개개인의 스윙에 딱맞는 스펙의 클럽을 제공



예약제 우선 (본사 매장)  
가격 영원 불변 정책



# 10개월간 35차례... 이복현 광폭행보에 금융권 피로감

〈금융권 CEO 회동〉

〈금융감독원장〉

한 달에 3.5번꼴로 직접 만나 11번의 현장 직접 방문 진행도 업계 “상생금융 취지 이해하지만 VIP 행사엔 업무 사실상 마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10개월간 35차례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업권별 간담회 같은 정례적인 만남 외에 코로나19와 고금리 상황에서 취약차주 금융지원 완화를 위해 직접 은행을 찾아 다녔다. 말 그대로 ‘광폭행보’다.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업권에서는 너무 잦은 만남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만 소리가 나온다.

16일 금융감독원 주간일정을 분석한 결과 이 원장은 지난해 6월 취임 후 10개월간 공식적으로 35차례에 걸쳐 금융권 CEO와 회동했다. 한 달에 3.5번 꼴로 업

권 CEO들을 직접 만나 금융권 현안을 논의했다.

이는 전임 정보원장(17번)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정 전 원장은 핀테크와 금융플랫폼 간담회 등 2회를 제외하면 모두 정례적인 업권 간 간담회였다.

반면, 이 원장은 금융사들과의 정례적인 간담회 외에 11번의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 현장 방문은 주로 은행 영업점을 직접 찾아 현장을 둘러보는 형식이었다.

이때마다 금융지주회장이나 은행장들이 함께했다. 또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금융 소비자, 소상공인 등을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 7월 취임 2개월 만에 신한은행 남대문지점을 찾으면서 첫 행보를 시작했다. 2주 뒤에는 전북은행 본점을 방문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 현장 경영에서는 경제 여건 악화와 관련해 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 등을 청취하며 취약차주 지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FSS SPEAKS 2023' 행사에서 박수치고 있다.

책 주문했다. 또 급격한 상환부담을 겪지 않도록 금융당국 차원의 연착륙 방안

을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올해 들어 이 원장은 현장경영의 속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이달 12일까지 모두 15번에 걸쳐 금융권 CEO를 만났는데, 이중 8차례가 영업현장에서다.

지난 2월 하나은행을 시작으로 부산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대구은행 등 사실상 전 은행권을 다 방문했다. 3월말과 4월에는 우리은행 영업점을 두 차례나 방문하면서 새로 선임된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일주일 동안 두 번 만나기도 했다.

이 원장은 방문할 때마다 상생금융에 대한 은행권 동참을 요구했다. 은행권은 일제히 릴레이 상생금융안을 내놓으면서 이 원장의 요구에 화답했다.

금감원은 하나, 부산, 국민, 신한, 우리, 대구은행 등 6개 은행의 상생금융지원 방안이 가계 대출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해본 결과 연간 차주 170만 명이

3300억 원 수준의 대출이자 감면 효과를 예상했다.

선이가 입장에 따라 때로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금융권에서는 취지는 이해하면서도 너무 잦은 만남으로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은행권 관계자는 “영업점을 방문하는 의도와 취지는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VIP 행사가 있으면 해당 지점의 업무가 사실상 마비되는 만큼 부담감도 크다”고 토로했다.

혁신금융을 추진하는 빅테크 업체들은 서운함도 있다. 빅테크 업계 관계자는 “혁신 서비스와 관련해 관련 규제를 풀어줄 것처럼 하더니 간담회가 끝나고 나서는 다시 규제 장벽이 여전한 경우가 많다”며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도 당국의 규제가 너무 심해 혁신금융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빅테크 업체들의 사기가 많이 꺾인 상태”라고 하소연했다. 김범근 기자 nova@

## 우리은행장 후보 4인 역량평가... 외부 전문가 검증 거친다

### ‘지주 2인자’ 선임 절차 가동

차기 우리은행장 선임 절차가 본격 가동됐다. 네 명의 은행장 후보들은 이번 주 사실상 첫 면접을 앞두고 있다. 이번 행장은 ‘임종룡 체제’ 출범 이후 선임되는 ‘지주 2인자’이자 새로운 검증 프로그램을 거치는 만큼 그 결과에 금융권 관심이 쏠린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1일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정기이사회에서 은행장 후보군이 사외이사과 회장에 업무 진행 상황, 향후 목표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사외이사 6명이 모두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 위원이고 임회장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새로운 은행장 선정 프로그램의 검증 단계 중 하나인 ‘업무역량 평가’가 진행되는 셈이다.

우리은행장 1차 후보군(롱리스트)에는 △이석태 우리은행 국내영업부부장 △강신국 우리은행 기업투자금융부부장 △박완식 우리카드 대표 △조병규 우리금융캐피탈 대표 4명이 이름을 올렸다.

### 새 4단계 검증 프로그램 도입 임종룡 “객관적으로 선임 추진” 이석태·강신국·박완식·조병규 1차 후보군에 이름 올려

금융권에서는 이 후보와 강 후보자가 상대적으로 유력한 후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두 후보가 현재 개인그룹, 기업그룹의 집행부행장으로 우리은행의 최고 위급 임원인 부부장이기 때문이다. 박 후보나 조 후보가 지난달 7일 자추위를 통해 각각 우리카드와 우리캐피탈 최고 경영자(CEO)로 낙점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도 고려된다. 두 자회사 대표이사 자리에 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그러나 현장 영업에서 전배가 굵은 박 후보와 조 후보의 선임 가능성도 작지 않다는 시각이 있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우리금융은 이번 은행장 선정에 4단계 검증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외부 전문가 심층 인터뷰, 임원 재임 기간 평



이석태 국내영업부부장



강신국 기업투자금융부부장



박완식 우리카드 대표



조병규 우리금융캐피탈 대표

조희, 업적·역량 평가 등 3단계 검증을 거쳐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한다. 이후 자추위에서 최종 심층면접과 경영계획 발표(PT)를 거친다. 다음달 말 자추위에서 차기 은행장이 정해질 예정이다.

내부적으로 자추위 논의만을 통해 은행장을 선임했던 기존과는 달리, 이번 우리은행장 선임 과정에는 후보자 검증에 외부 전문가를 동원하고 업무역량 등 여러 평가 단계를 통해 투명성과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그러나 임 회장이 자추위 위원장인 만큼 최종 은행장 선임에는 임 회장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다만, 임 회장이 외부 출신인 데다 투

명한 조직개편을 강조한 만큼 은행장 선임 과정에 대해 한 발 물러나 조심스러운 태도로 일관 중이다. 은행장 1차 후보군 선정에서부터 균형을 잡아 내부 갈등 최소화해 힘쓰는 모습이 대표적이다. 후보군 4명 중 이석태·조병규 후보는 상업은행, 강신국·박완식 후보는 한일은행 출신이다. 1999년 상업·한일은행이 합병하면서 생긴 계파 간 다툼이 20여년이 지나면서 과거보다는 희석됐다는 평가가 있지만, 여전히 고위직급에는 통합 이전 세대가 많이 남아 있어 현존하는 갈등으로 꼽힌다.

임 회장은 “상업·한일은행 출신 간 갈등은 결국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

보하면 해결될 일”이라며 “외부에서 온 만큼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선임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임 회장을 비롯한 이사진은 후보자들의 ‘영업력’을 중점으로 보겠다는 입장이다. 우리금융 자추위는 앞서 ‘자회사는 영업 중심’이라는 임 회장의 경영방침에 맞춰 영업력을 갖춘 은행장이 선임돼야 한다는 점에 전연 의견 일치를 봤다. 우리은행 노조 역시 ‘영업 현장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맞춰 설문 형태로 후보자들을 평가할 예정이다.

임 회장의 후보군 영업력 평가는 사실상 이달 초부터 시작됐다는 관측도 있다. 임 회장은 취임 후 이달 4일부터 현장 경영 행보의 시작으로 15개 자회사를 방문했다. 첫날에는 우리금융캐피탈을, 12일에는 우리카드를 방문해 박 후보자, 조 후보자 등 임직원과의 만남을 가졌다. 앞서 임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자회사 대표로서 본업에 얼마나 충실히 하는지조차도 평가 요소”라고 강조한 바 있다. 유하영 기자 haha@

## 저축銀 지급정지 루머 악용... 금감원, 불공정거래 집중 감시

### “웰컴·OK저축은행 지급정지” 불특정 다수에 문자메시지 발송 공매도 세력 연계 가능성 조사

대형 저축은행에서 1조 원대 손실이 발생해 지급정지가 예상된다. ‘위기설’이 돌자 금융당국이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한 세력이 있는지 집중 감시에 돌입한다.

미국 살리콘밸리은행(SVB)이 36시간 만에 파산한 배경으로 ‘디지털 뱅크런’이 꼽히면서 작은 소문에도 금융시스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계심이 커지고 있다.

16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관련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보니 시장 불안을 조

성해 간접적으로 이익을 보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면서 “수사기관과 협력해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웰컴과 OK저축은행이 부동산 PF 대출에서 1조 원대 손실이 발생해 지급정지 예정이라며 잔액을 모두 인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돌았다. 해당 내용은 개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송됐고, 이후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됐다. 저축은행중앙회와 해당 은행은 유포자를 고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금융당국도 이 같은 지라시를 확인한 뒤 30분 단위로 해당 저축은행에서의 예금 인출 추이 등을 살펴봄에 비상대기 상태에 돌입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 건전성과 시장 불안에 대한 루머를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허무맹랑한 거짓 루머나 지라시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해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떠도는 정보가 상장사와 관련한 것이거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일 경우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지 집중 조사한다. 금감원은 상장사 관련 루머와 관련해서는 주가 불공정 세력이나 공매도 세력이 연계됐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SVB 사태로 작은 소문에도 금융시스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계심이 커지면서 당국은 엄중 대처를 주문하고 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

## 삼성카드, 마이데이터 예비인가... 신사업 길 열려

삼성카드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인가를 받았다. 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중장기로 신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던 삼성카드가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례회의에서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예비인가안을 통과시켰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소비패턴 등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상품 등을 추천해주는 등 자산·신용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소비자는 일일이 각 금융사의 앱에 들어갈 필요 없이 마이데이터를 통해 본인 정보를 한눈에 통합 조회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삼성카드의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기관경고를 받았기 때

문에 그동안 자격 제한이 적용됐다”면서 “이제 그 자격 제한이 풀려 삼성카드가 예비인가안을 냈고 통과됐다”고 말했다.

2020년 12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암 입원비 지급 거절과 계열사 부당지원을 이유로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중장계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카드사 중 유일하게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심사를 보류했다.

이후 지난해 1월 금융위 의결로 삼성생명의 기관경고가 확정되면서 삼성생명 그 자회사인 삼성카드 등은 1년간 신사업 진출이 차단됐다.

삼성카드가 신사업 진출이 가능해지면서 마이데이터 사업을 기반으로 한 사업 확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

# “수사역량 앞서”... 금감원에 기우는 가상자산 조사권

## 가상자산법안 처리 방향은

제2의 ‘테라·루나’ 사태를 막고자 국회가 가상자산 입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조사 권한을 가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가상자산 법안을 논의 중인 국회정무위원회에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조사 권한을 금감원에 직접 부여하는 방안이 언급되면서다.

16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지난달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회를 통해 가상자산 규율 제정안 11건 등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관련 법안 18개를 논의했다. 최근 ‘테라·루나 사태’의 장본인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체포된 가운데 여야가 단계적 입법에 의견을 모으면서 가상자산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를 들여다볼 권한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국회에선 조사역량이 갖춰진 금감원에 가상자산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무게가 기우는 분위기다. 가상자산 조사 권한을 두고 이

지난달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서

“금감원에 조사권한 명시” 지적

“금융위 對 금감원 경험·인력차”

조사 조직 확대엔 행안부 반대

인력·예산 등 관계부처 협의를

날 정무위 소위에서는 신속한 가상자산 조사 체계를 갖추기 위해 법안에 금감원의 조사 권한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은 대부분 금융위에 불공정거래 조사 권한을 부여하되 업무 범위를 금감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와 별도로 금감원이 인력 배치 등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검사·감독 권한을 별도 조항으로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이날 정무위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해외로 불법으로 나간 돈이 12



서울 서초구 빙셀 고객센터 전광판에 가상화폐 시세가 보이고 있다.

이투데이DB

조 원인데 전부 금감원이 체크해서 검찰의 수사 의뢰한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를 위해 금감원의 인력을 더 증원한다든지 규정을 뒤편에 일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민우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실질적으로 (가상자산 조사) 인력이 확정될지는 미지수지만 통상적으로는 감독원의 위임을 통해서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금감원의 조사 권한을) 가상자산법 안에 명시하지 않아도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통해 금감원이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축적된 경험과 인력 등 조사 역량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금융위는 2013년 9월부터 10년째 자본시장 조사 업무를 하고 있다. 담당 부서는 지난해 말 개편을 통해 자본시장조사총괄과, 자본시장조사과 2개과가 맡고 있다. 반면 금감원은 1988년 증권감독원 시절부터 35년째 조사 업무를 맡아왔다. 담당 부서는 기획조사국, 자본시장조사국, 특별조사국 등 3개국이다.

금융당국에 정통한 관계자는 “조사 경험이 어떻게 전수되고 축적됐느냐의 차이”라며 “매매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정상적 거래 여부를 잡아내고 관련자들 추적해내는 역량은 금감원이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정무위는 다음 소위 때까지 금감원의 의견을 받아 다시 논의하기로 한 상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아직 입법 초기 단계인 만큼 원활한 소통을 통해 조사 관련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가상자산 조사 관련 조직 확대 여부는 풀어야 할 문제다. 조직과 인력을 추가하기 위해선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나 행안부는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입법 취지가 실질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규율체계를 이행할 충분한 조직·인력·예산의 수반이 필수적”이라며 “금융위도 최선을 다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성욱 기자 sajikoku@

## 중소형 공모주 흥행에 활기찾은 중소형證

DB투자·신영證 등 중소형사

새내기주 IPO 新먹거리 부상

기업공개(IPO) 시장이 중소형주 중심으로 생기를 되찾자, 상장 주관 업무도 중소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활성화하고 있다.

16일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KIND)에 따르면 올해 DB투자증권, 신영증권, IBK투자증권, 키움증권, 현대차증권 등 그간 IPO 시장에서 활동이 활발하지 않았던 중소형 증권사들이 상장 주관사로 참여했다.

앞서 한화투자증권과 현대차증권은 1월에 상장한 티이엠씨와 한주라이트메탈 상장 주관을 각각 맡았다. 두 증권사는 지난해 상장 주관 실적이 없었다. 현대차증권은 2020년 이후 첫 IPO 실적이다. 한화투자증권의 경우 11년 만에 단독 상장 주관업무를 맡은 것이다.

이외에도 △DB금융투자(바이오인프

라) △신영증권(자람테크놀로지) △IBK투자증권(이노진) △키움증권(꿈바·샌즈랩) 등이 상장을 주관했다.

이들 중소형 증권사가 주관한 새내기주들은 IPO 흥행 성과를 이뤘었다. 신영증권이 상장을 주관한 자람테크놀로지는 기관 수요에 촉응에서 경쟁률 1702대 1을 기록하고, 일반 청약에서 증거금 약 2조6000억 원을 확보했다. 키움증권이 주관을 맡았던 꿈바는 일반 청약에서 1772.5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2조 원이 넘는 증거금을 모아 화제가 됐다.

현재 상장 주관 업무에 출격 예정인 증권사도 많다. SK증권은 신한투자증권과 공동으로 씨유박스 상장주관을 맡았다. SK증권은 SK그룹에서 계열분리 한 2018년 이후 첫 상장 주관업무다. 앞서 SK아이이테크놀로지 등 SK그룹 계열사 공모에 인수단으로 참여한 것 외에는 대표 주관 실적이 없었다.

교보증권도 토마토시스템의 코스닥이

전 상장을 맡아 3년 만에 IPO 주관에 나섰다. 공모가를 밴드하단으로 확정해 주주친화적인 공모가를 형성하는 등 흥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분위기다.

이처럼 IPO 시장이 중소형 증권사 중심으로 재편된 것은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IPO 시장이 활기를 띠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부터 ‘대어급’ 기업은 상장 철회가 이어진 대신 중소형 기업들이 IPO 흥행 자리를 메우자, 중소형 증권사 사이에서 상장 주관 업무가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른 셈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근 IPO 시장의 회복세는 변동성으로 위축됐던 증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수익률이 양호했던 공모주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는 현상으로 생각된다”며 “올해 코스닥 시장의 반등과 더불어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은 기관 입장에서는 소액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중소형 공모주 위주로 수요가 몰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민지 기자 handmin@

## 올 6.5배... 알에프세미, 조용한 잭팟

감사 적정 의견·경영권 이전

이벤트 겹치며 수익률 1위로

최근 에코프로 등이 급격한 주가 급등을 보이는 가운데 알에프세미가 올 초 대비 가장 높은 등락률을 보이는 등 조용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감사의견 적정 평가, 경영권 이전 등이벤트가 겹치며 테마주 형태로 급격한 주가 상승을 이뤄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이달 14일까지 가장 높은 등락률을 보인 종목은 2310원에서 1만5080원으로 552.81% 오른 알에프세미다. 같은 기간 에코프로는 493.2%, HLB이노베이션은 383.12% 상승했다.

알에프세미 주가는 연초부터 2월까지 57.49% 상승하며 비교적 평탄한 우상향 그래프를 그렸으나 3월 말부터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14일 종가 1만5080원은 3월 초 3575원 대비 439.74% 상승한 가격이다. 주가 급등으로 알에프세미는 이달 4일과 11일 투자 경고종목에 지정됐고 12일 하루 간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받기도 했다.

이같은 주가 급등은 3월 말 감사보고서 적정 의견 감사보고서 제출과 4월 초 경영권 이전과 이에 따른 이차전지 사업 진출 소식이 겹치면서 매수세가 몰린 탓으로 풀이된다.

알에프세미는 2019년부터 영업손실을 지속해 올해 관리종목 지정이 우려됐으나 감사보고서 적정 평가를 받으면서 위기를 넘겼다.

또한, 지난달 31일에는 진평그룹 관계사인 진평전자와 경영권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진평전자는 200억 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경영권 양수도 대금을 낸다.

진평그룹은 리튬인산철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보유 중이며



리튬 배터리 패키징 설계, 제조업을 영위 중이다. 알에프세미를 통해 이차전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알에프세미는 5일 공시를 통해 5월 22일 주주총회에서 배터리 셀, 배터리 팩, 배터리 소재 등 수입, 개발, 제조, 판매 등 25개 사업목적별 정관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한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투자위험종목에 지정되기도 했을뿐더러, 긴 기간 영업손실 기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상승요인이 감사 의견 적정, 이차전지 사업 진출 등으로 테마주 성격이 강하고, 높은 주가 상승에 따라 상승세 자체에 매수가 유입되는 ‘민주식’화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실제로 올해 초부터 이달 14일까지 거래량 2억851만516주 중 개인이 1억8097만402주를 거래해 전체 거래량의 86% 비중을 차지했다.

이 기간 기관은 22억2300만 원, 외국인 12억7500만 원 순매도했고 개인은 41억5800만 원 순매수했다.

한재혁 하나증권 연구원은 “테마주는 시장 수급 받쳐주지 않거나 투자자들 시선이 다른 테마로 넘어가면 순식간에 손실을 볼 수 있는 하이리스크-하이리턴 매매”라며 “급등하는 테마주에 대한 FOMO 심리 뇌동매매는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민규 기자 pmk8989@

## 외국인 사자, 삼성전자 연중 최고치

연초 5만5000원대에서 시작한 삼성전자가 주가가 어느새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며 6만5000원까지 올라와 ‘7만 전자’를 바라보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을 저가 매수 기회로 보고 대규모로 쏟아입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증권가에선 목표주가를 상향 중이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4일 전 거래일 대비 1000원(-1.51%) 내린 6만5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비록 주가가 하락하긴 했지만, 시초가는 6만6600원을 기록해 다시 한번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1월 2일부터 현재까지 상승률은 20%로, 상승을 주도하는 주체는 외국인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개인과 기관은 각각 5조3424억 원, 9630억 원 순매도한

가운데, 외국인은 6조3946억 원을 순매수했다.

이달로 기간을 좁혀봐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1위는 삼성전자로 1조6917억 원을 사들였다. 2위는 현대차(1563억 원), 3위는 기아(1426억 원) 등이 차지했는데 삼성전자의 10% 수준도 못 미칠 정도로 압도적인 순매수였다.

KB증권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외국인 보유비중이 51.09%로 지난해 4월 22일 이후 약 1년 만에 최고치다.

특히 최근 삼성전자는 1분기 영업이익 6000억 원을 기록해 어닝쇼크를 기록한 상황이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들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경쟁사들이 가동률 조정과 설비투자 축소에 나선 가운데, 세계 1위 메모리

## 올들어 6.4배 순매수 20% 상승 증권가 “하반기 실적반등 기대감”

업체인 삼성전자가 감사카드를 꺼내들면서 메모리 가격 반등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가에선 반도체 재고가 2분기 정점을 기록 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국내 증권사 모두 목표주가를 상향 중이다.

국내 증권사 중 IBK투자증권이 기존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BNK투자증권은 8만3000원에서 8만7000원, 키움증권은 7만8000원에서 8만 원으로 올려잡았다. 해외 증권사 중 골드만삭스는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기존 7만4000원에서 7만7000원으로, HSBC는 7만5000원에서 8만8000원으로, 미즈호는 7만7000원에서 8만 원으로 각각 올렸다.

박상민 기자 si2020@

# 2兆 시장 누가 먼저 들까... 식품업계 '떠요 전쟁'

〈떠먹는 요거트〉

코로나19 여파에 건강을 챙기는 이들이 늘면서 요거트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식품업체들은 건강에 도움 되는 첨가물을 추가하고, 저당 제품과 식물성 제품으로 요거트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발효유는 마시는 제품과 떠먹는(호상) 제품으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떠먹는 발효유를 요거트로 지칭한다.

1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헬시 플래저(Healthy Pleasure) 트렌드에 힘입어 국내 요거트 시장 성장세가 가파르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18년 1조8015억 원이던 국내 요거트 시장 규모는 2020년 1조9004억 원으로 성장했다. 지난해엔 2조 원대 벽을 뚫었으며 2025년에는 2조 1152억 원으로 더 성장할 전망이다.

우선 유가공업체들의 요거트 사업 강화가 눈에 띈다. 출산율 저하로 우유 소비가 정체되는 가운데 유가공업체에 원유를 배이스로 하는 요거트만큼 매력적인 제품군

2025년 시장 2.1兆로 성장 전망  
"젊은층서 식사 대용으로 인기"

빙그레, 그릭요거트 라인업 확장  
남양, 불가리스 신제품 2종 내놔  
일동후디스·hy도 사업강화 나서

이 없기 때문이다.

떠먹는 요거트 점유율 1위로 평가받는 빙그레는 이달 초 신제품 '요플레 그릭' 2종을 출시하며 그릭 요거트로 라인업을 확장했다. 한 컵씩 개별 발효해 흘러내리지 않는 단단하고 꾸덕한 질감이 특징이다. 빙그레는 현재 '요플레 닥터캡슐'과 '요플레 프로틴' 등의 요거트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떠먹는 요거트 시장에서 빙그레와 선두 싸움을 하는 남양유업은 2009년 '떠먹는



불가리스(떠불)'와 2020년 '또작! 접어 떠먹는 불가리스(또떠불)'에 이어 지난달 떠불의 신상품 '불가리스 떠불 블루베리', '불가리스 떠불 청귤' 등 2종을 내놨다.

일동후디스도 최근 오리지널 라인인 '후디스 그릭 플레이'에서 당을 제거해 만든 '후디스 그릭 달지않은 플레이'를 출시했다. 1A 등급 원유를 2배 농축 후 유산균만 넣었으며 식품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100g당 생 유산균 1800억 마리, 우유 대비 2배의 단백질과 칼슘을 함유했다.

비요프와 요하임, 마이픽 등의 요거트 브랜드를 판매 중인 서울우유도 지난해 '마이픽 꺾어먹는 요거트'를 신상품을 내고 요거트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발효유전문업체들도 요거트 사업에 힘을 주고 있다. hy는 마시는 음료인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월'의 떠먹는 요거트 버전 '떠먹는 월'을 최근 내놨다. '월' 브랜드 최초의 요거트다. 2000년 출시한 '월'은 위 건강을 위한 발효유로 누적 판매량 47억 개를 달성한 메가 히트 제품이다. hy 관계자는 "떠먹는 월"을 시작으로 계

속해서 떠먹는 발효유 제품을 리뉴얼해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 그릭 요거트 최강자인 풀무원다는은 요거트 사업에 가장 힘을 주고 있는 업체로 꼽힌다. 올해 2월 '아이리브요거트'의 브랜드명을 '하루요거트'로 변경해 새롭게 론칭했고, 같은 달에는 한국비건인증원으로부터 '비건 인증'을 받은 '액티비아(ACTIVIA)'의 '식물성요거트 컵 오토&흑미', '액티비아 식물성요거트 컵 블루베리' 2종을 내놓고 라인업을 확대했다. 지난달에는 동물복지 인증 목장의 원유로 만든 '동물복지인증목장 요거트'를 선보이며 지속가능한 요거트 시장 확대에 나섰다.

발효유 업체 관계자는 "최근 젊은 층들 사이에서 아침 대용으로 요거트에 시리얼을 첨가해 먹거나, 샐러드 등에 드레싱 대신 요거트를 함께 먹는 것이 트렌드"라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잔망루피' 팝업스토어 오픈

한대백화점은 20일까지 판교점 4층에서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의 팝업스토어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봉제 인형·사무용품·스마트폰 케이스 등 다양한 캐릭터 굿즈를 한정 판매하고, 캐릭터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운영한다.

## 내실 다지기 SK바사 vs GC녹십자 새시장 확장

### 독감 백신서 한판승부

SK바사, 스카이셀플루 생산 재개  
GC녹십자, mRNA백신 개발 박차

큰 일교차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의 영향으로 4월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올해 독감 백신 시장 승자는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독감백신 시장 규모는 코로나 전인 2020년 기준 4000억 원에 달했으며, SK바이오사이언스(약 1656억 원)와 GC녹십자(약 829억 원)가 1, 2위로 시장을 장악했다. 하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가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19 백신 생산에 집중하며 국내 공급을 일시 중단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올해 독감 백신 접종 시즌에 맞춰 생산 재개에 들어갈 계획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셀플루4가프리필드시린지(스카이셀플루)'는 세계 최초로 개발된 4가 세포배양 독감 백신이다. 기존 유행 방식의 독감 백신과 비교했을 때 생산 기간이 절반 정도로 짧아 팬데믹이나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스카이셀플루는 말레이시아·태국·필리핀·미얀마·이란·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권 국가의 허가를 획득했고, 올해 2월 칠레에서도 품목허가를 획득하며 중남미권 시장 공략에도 나설 계획이다.

GC녹십자의 대표품목인 '지씨플루워드리블렌트프리필드시린지(지씨플루)'는 2009년 상용화 이후 최근 누적 생산 물량 3억 도스를 돌파했다. 전 세계 인구 3억 명이 '지씨플루'를 접종한 셈이다. GC녹십자가 독감백신을 수출한 국가는 62개국에 달한다.

GC녹십자는 기존 독감백신 외에도 mRNA 독감백신 개발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4월 캐나다의 아퀴타스와 체결한 지질나노입자(LNP)의 라이선스 계약 옵션을 올해 3월 행사하면서다. 아퀴타스가 보유하고 있는 LNP 기술은 화이자(Pfizer)의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에 적용된 바 있다. GC녹십자는 그동안 축적해온 독감백신에 관한 기술과 검증된 아퀴타스의 기술을 활용해 내년 임상 1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상우 기자 nswreal@

## 배달 수요 뚝뚝... 이용자 잡기 나선 쿠팡이츠

물가 뛰며 고객·라이더 이탈↑  
다음 주문 미리받기' 새기능 추가  
유료멤버십 회원 할인 프로모션

배달 앱을 이용하는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가운데 쿠팡이츠의 배달 앱 서비스 쿠팡이츠가 신규 기능, 할인 등 대응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라이더와 이용자 잡기에 나섰다.

16일 쿠팡에 따르면 최근 쿠팡이츠는 '다음 주문 미리받기' 기능을 신규 추가했다. 배달 라이더가 음식을 픽업한 뒤 배달지로 가기 전 새로운 신규 주문을 미리 받을 수 있는 기능이다. 현재 베타 테스트 중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미리받기 기능 이용이 불가능하다.

그동안에는 배달 라이더가 음식을 배달지에 완전히 전달해야만 신규 주문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기능 업데이트로 다음 신규 주문을 미리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배달 풀수행이 가능해졌다는 게 쿠팡이츠의 설명이다.

쿠팡이츠는 최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피크타임에 배달 단가를 일부 상향 조정하는 등 배달 단가 인상 프로모션도 진행 중이다. 배달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피크타임에 배달 단가를 끌어올려 라이더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산이다.

쿠팡이츠는 이용자 잡기에도 뛰어들었다. 쿠팡이츠는 이달 10일부터 서울시 송파구와 관악구 지역에서 주문마다 5~10% 할인해주는 프로모션을 실시했다. 쿠팡의 유료 멤버십인 '와우' 회원 대상이며, 쿠팡이츠는 반응을 살펴본 뒤 적용 지역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쿠팡이츠가 라이더의 수익 개선 정책과 이용자의 배달료 할인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배경은 쪼그라들기 시작한 배달 시장과 관련이 있다. 엔데믹에 따른 외식 수요 증가, 가파른 배달비 상승으로 배달 앱 이용자들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3월 배달 앱 3사(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2898만 명으로 전년 동월(3532만 명) 대비 18% 감소했다.

줄어든 배달 수요는 라이더들의 이탈을 가속하고 있다. 실제로 배달 라이더들의 커뮤니티인 네이버 카페 '배달 세상'에서는 '배달 풀이 없다'라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가파른 배달료 상승이 이용자들의 이탈 원인인 만큼 일각에서는 배달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내놓은 '2022-2023 국내외 외식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배달료가 '비싸다'고 응답한 비율은 57.8%, '조금 비싸다'고 응답한 비율은 34.6%로 조사됐다. 적정 배달료로는 2000원을 선택한 응답자가 68.6%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 김 모(32) 씨는 "배달료 상승과 함께 최근 외식 물가까지 가파르게 오르면서 음식을 시켜 먹는 게 비용적으로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peter@

## 올리브영, 팬데믹 기간 中 300개 발굴

연평균 매출 4년 전보다 2배 이상 ↑

CJ올리브영은 팬데믹(2020~2022년) 기간 발굴한 중소기업 브랜드 수가 300개를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연평균 100여 개의 브랜드를 발굴한 셈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발굴한 브랜드 수보다도 50% 이상 늘었다.

올리브영은 이 기간 입점한 중기 브랜드들의 연평균 매출도 2019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올영세일', '올리브영 어워즈&페스타' 등 고객 접점을 확대하고 신규 브랜드를 적극 육성해온 성과로 풀이했다. 해당 기간 발굴한 중기 브

랜드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에는 건강과 면역력에 대한 고객의 관심을 반영해 건강·위생용품과 건강식품 카테고리 입점 브랜드 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피부 트러블 고민이 대두된 2021년엔 기초화장품이, 엔데믹이 임박한 2022년에는 색조화장품 카테고리의 입점 브랜드 수가 급증했다.

팬데믹 시기에 입점한 브랜드들의 글로벌 시장 선전도 돋보인다. 올리브영은 2021년 입점한 '디어달리아'와 '힌스'가 이듬해 매출이 각각 115%, 85% 늘며 성장세를 키웠다고 밝혔다.

조남호 기자 spdran@

# ‘간첩 누명’ 52년만에 재심… 檢 “권고 수용 못해” 논란

**간첩 혐의 징역형 故 한삼택 씨 아들 “고문 등 의한 허위자백” 法, 진화위 재심 권고에 첫 심문 檢 “불법구금 없어” 기각 요청**

제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 간첩 조작 사건에 휘말려 징역형을 받았다가 숨진 제주의 한 중학교 직원에 대한 재심이 52년 만에 열렸지만, 검찰이 반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14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고(故) 한삼택 씨에 대한 재심 첫 심문을 열었다.

한 씨는 1971년 11월 제주의 한 중학교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조총련 관계자와 서신을 주고받고, 편의를 제공한 뒤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다.

한 씨의 아들은 “아버지가 불법체포 및 구금,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연락, 금품수수, 편의제공, 찬양고무 등을 했다는 터무니 없는 죄를 뒤집어쓰게 됐다”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에 사건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월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불법구금 △수사관들의 고문·가혹행위 △허위 자백 및 진술 강요 등이 있었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하고 재심 조

치를 권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14일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가혹행위가 있었음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대신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 씨 측의 재심 개시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불법구금 등을 주장하지 않았고, 법원에서 엄격한 심사 후에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유죄를 선고했다”며 “당시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 확정된 판결은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고, 사소한 의심으로 부정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명백히 임의동행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증거도 없다”며 “(한 씨가) 1970년 9월 29일부터 불법구금 상태에 있

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한 씨 측 대리인을 맡고 있는 최정규 변호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검찰이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을 그저 사소한 의심으로 치부하고, 유족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고 하는 태도는 그 의도가 어떠한 사실상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검찰이 주장한 ‘임의동행’ 부분에 대해서도 “진실화해위 결정문에서 지적하듯이 임의동행 형태를 취해 연행했다고 하더라도 조사 후 귀가시키지 않고, 한 씨의 의사에 반해 경찰서 조사실 또는 보호실 등에 계속 유치함으로써 자유를 속박했다면 구금에 해당한다”고 반

박했다.

그러면서 “한 씨가 조사를 받았던 1970년에는 임의동행을 빙자한 불법구금이 공공연하게 용인돼 왔다는 사실, 시민들이 수사기관의 이런 불법구금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이라며 “이제 와서 불법구금 주장을 하지 않은 피해자를 탓하는 검찰의 억지스러운 주장에 동의할 사람이 과연 있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유족 측은 법원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송석주 기자 ssp@

## ‘유학생 유치’ 대학·지자체 목소리 듣는다

**교육부, 권역별 5회 의견 수렴**

교육부가 내달 유학생 유치 경쟁력 제고방안(가칭 스테디 코리아 3.0)을 발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17일 한양대(수도권)에서 개최하는 첫 권역별 간담회를 시작으로, 총 5차례에 걸쳐 대학·지자체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한다.

앞서 국내대학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교육부는 2004년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종합방안’을 발표 이후 세 번의 계획(2008년·2012년·2015년)에 걸쳐 새로운 유학생 유치 목표를 설정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유학생 수는 2004년 1만6000만여 명 대비 2022년 16만여 명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코로나19로 약화됐던 전 세계 유학생의 국제적 이동성이 회복됨에 따라, 고등교육 분야 유학생 유치를 위한 각국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돼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먼저 17일 수도권(한양대)을 시작으로 △충청권(18일·대전과학기술대) △대경권(20일·경북대) △동남권(21일·부산대) △호남권(24일·전남대) 순으로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과 연계한 유학생 유치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또한, 국내 취업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 제공까지 한국유학의 성장 경로를 제시함으로써 유학생 유치 효과를 제고하는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향후 국립국제교육원 및 해외 한국교육원, 유관부처 협의 등을 통해 폭넓은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며, 5월까지 ‘유학생 유치 경쟁력 제고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송현경 기자 son89@



“간호법·면허박탈법 제정 반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들이 16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간호법 제정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는 간호사·전문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연합뉴스

## “회생 기업 온실가스 배출권 축소 정당”

**선박 업체, 환경부 상대 소송 法 “처분 적법” 원고 청구 기각**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취소한 환경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경중 부장판사)는 16일 선박 건조 수리·판매 및 임대업을 운영하는 A 회사가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사는 2018년 4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그로부터 4개월 뒤 A 사는 환경부에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 내 일년에 17만4000여 톤(t)씩, 모두 52만4000여t에 대한 배출권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A 사에 49만3000여t(해마다 16만4000여t)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환경부는 2019년 5월 회생절차 진행 중이던 A 사가 시설 가동을 정지했

다는 이유로 2018년에 해당하는 16만4000여t 가운데 15만9000여t에 대한 배출권 할당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환경부는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에도 A 사에 16만2000여t을 할당했는데, 같은 이유로 15만1000여t에 대한 배출권 할당을 취소했다.

배출권 거래법 제10조 제1항 등에 따르면 자연재해, 화재, 시설 노후화에 따른 교체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한 연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연도를 제외한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

A 사 측은 “원고와 같이 회생절차 진행으로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저하게 감소한 연도가 있는 경우에도 (위법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환경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자연재해, 화재, 시설 노후화에 따른 교체 등”과 동일하게 객관적인 불가항력의 사유로 생산활동이 중단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송석주 기자 ssp@

## 공소시효 두달 남은 SPC ‘통행세 거래’… 檢, 곧 수사

**파리크라상·SPL 등 계열사들 원재료 삼립서 구매 ‘부당지원’ 수년째 수사 안해 추측 난무**

SPC 부당지원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곧 만료된다. 수년간 수사를 해온 검찰은 추가 수사를 이어간 뒤 수개월 내 사건에 중징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6월로 예상되는 SPC 사건 공소시효 완성을 앞두고 조만간 수사 마무리에 속도를 올릴 전망이다.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가 SPC를 검찰에 고발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SPC의 위법 행위는 ‘통행세 거래’ 부분이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파리크라상과 SPL, 비알코리아가 생산 계열사의 원재료와 완제품을 역할 없는 삼립을 통해 구매하게끔 했다는 내용이다.

이 행위가 종료된 정확한 날짜는 2018년 7월 1일이며 공소시효 5년인 점을 고려하면 공소시효는 올해 6월 30일까지



다. 앞으로 약 2달간 수사팀은 그간 누적된 정보와 기록 등을 검토하며 추가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 2020년부터 접수된 상태였다. 수년이 지나도록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여러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사건이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SPC 사건의 공소시효가 상대적으로 남은 만큼 상대적으로 공소시효가 촉박한 사건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다가 후순위로 밀렸다는 말이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건으로 SPC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SPC가 이에 불응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동시에 사건을 수사 중인 검

찰은 행정소송 결과를 참고하기 위해 법원의 선고를 기다리다가 차일피일 늦어진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SPC 부당지원 사건에서 여러 행위마다 발생 시점과 공소시효가 다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때문에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들을 순서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냐는 예상도 나오지만, 검찰 내부 분위기를 종합해보면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6월 내 SPC 관련 부당지원 사건을 모두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SPC 법인에 대한 검찰 수사와 별개로 수사팀은 SPC그룹 허영인 회장과 회사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2012년 12월 회장 일가에 대한 증여세 부과 회피하기 위해 밀다윈 주식에 삼립이 저가로 양도해 사니에 주식처분 손실 58억1000만 원의 손해를, 파리크라상에 주식처분 손실 121억6000만 원의 손해를 각각 끼쳤다. 또한 삼립에 179억7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이수진 기자 abc123@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하나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

# 외화동전이 만드는 하나의 기적

하나금융그룹은 의료 사각지대 아동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하나금융그룹은 모금함에 모인 세계 각국의 외화동전을 분류하는 봉사활동을 통해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달합니다.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성평등교육 본질은 상대에 대한 배려와 존중”

장명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2003년 설립... 20년 동안 공공부문 종사자 150만명 교육  
폭력예방 전문강사 양성도 주임무, 현재 960여명 활동 중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양평원)이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았다. 양평원은 2001년 여성부(현 여성가족부)가 처음 생기면서 여성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교육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문을 열었다. 2003년 4명의 단출한 인력이 투입돼 시작한 양평원은 연간 1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여가 부 주요 산하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성인지 감수성 제고와 폭력 예방에 앞장서온 장명선(사진) 양평원장을 14일 서울 은평구 양평원 원장실에서 만나 지난 20년간의 조직 성과를 물었다. 2021년 여름 취임해 임기 3분의 2가량을 수행한 장 원장은 “4명으로 시작한 양평원이 지금은 120명이 넘는 인원이 일하는 조직이 됐다”면서 “성평등 정책을 실현하는데 양평원이 꽤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본다”고 의미를 짚었다.

지난 20년 동안 양평원 강의를 들은 공공부문 종사자는 150만 명을 웃돈다. 성평등, 폭력 예방 등이 핵심 주제다.

장 원장은 “국방부, 경찰청 등 기관의 특성에 따라 교육 콘텐츠가 달라진다”

면서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담당자와 사전에 기획회의를 거쳐 기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교육 내용, 시간 등을 결정한다”고 교육 과정을 설명했다.

3월 육군사관학교 생도를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에서는 신승은 감독의 단편영화 ‘프론트맨’ (2019)의 내용을 일부 활용하기도 했다. 공정한 경쟁이나 선발 과정 없이 남학생을 핵심 연주자인 ‘프론트맨’에 배정하는 교사의 관행적인 행동을 소재로 다뤘다. 성평등을 바라보는 젊은 감독의 시선을 빌려 보다 효과적인 강의 콘텐츠로 활용한다는 취지다. 양평원 관계자는 해당 교육에서 “유리천장”이라는 용어가 남학생들 입에서 나왔을 정도로 반향이 있었다”고 전했다.

양평원은 ‘프론트맨’처럼 교육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단편영화의 제작 활성화를 위해 5년째 서울국제여성영화제를 통한 ‘필름X젠더’ 부문 제작지원금을 수여하고 있다.

폭력 예방 교육 전문 강사를 양성, 위촉하는 것 또한 양평원의 주요 임무다. 현재 960명의 전문 강사가 양평원이 발급한 전



문강사 자격증을 부여받아 활동 중이다. 이들은 각종 보수교육을 거쳐 1년 단위로 재위촉된다.

장 원장은 “150시간의 강의를 들어야 하는 만큼 쉬운 과정은 아니다”라면서도 “현직 변호사가 자격증을 따서 활동하는 경우가 꽤 많다. 법을 잘 아는 이들이 전문 강사로 나설 경우 기업의 교육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고, 전문성을 쌓으면서 관련 사건도 맡게 되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전문강사의 성비가 9대 1로 남성 수가 적은 건 아쉬운 지점이다. 다만 “올해 전문 강사 교육을 받는 175명 중 32명(18%)이 남성”이라면서 “퇴직한 군인이

나 경찰 등 몸담았던 조직의 성격을 잘 아는 남성들도 많이 지원한다”고 부연했다.

앞으로는 교육대상자의 역량이나 성평등 인식 수준에 따라 ‘기초-심화-전문’ 등으로 차별화된 단계별 교육을 제공하는 방향도 계획 중이다. “한 시간 안에 성희롱 교육을 모두 하기엔 사실상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생애 동안 굳어진 고정관념에 질문을 던지는 과정을 단시간 안에 소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장 원장은 “앞으로는 ‘저변에 이 교육을 들었으니 이번에는 그다음 과정을 들어보면 좋을 것’이라는 식의 안내까지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려 한다”고 설명했다.

본질적으로 이 모든 교육이 ‘존중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포괄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건넸다. ‘성평등 교육’이라는 표현이 품고 있는 다소 교과서적인 인상을 넘어, 상대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필요한 ‘배려와 존중’ 차원의 교육으로 접근한다는 의미다.

장 원장은 “이제는 성별, 젠더로만 관련 교육을 하는 건 쉽지 않다”면서 “우리나라도 이미 굉장히 다문화가 돼 있는 만큼 인권을 근본으로 하는 ‘존중교육’ 안에서 인종, 민주주의, 성, 폭력과 동의 문제 등을 두루 다루면 거부감이 덜 생기고 받아들이기도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꽃 기자 pgot@ 사진제공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유진, 롯데챔피언십 연장끝 2위  
우승컵은 호주교포 그레이스 김에



성유진(오른쪽 사진)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롯데 챔피언십 연장전을 넘지 못하고 우승에 실패했다. 성유진은 지난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롯데오픈 우승으로 LPGA 투어 롯데 챔피언십 초청 선수로 출전했다. 우승은 호주 교포인 그레이스 김(왼쪽)에게 돌아갔다.

성유진은 16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 주 오아후섬 에마비치의 호아칼레이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까지 12언더파 276타를 기록하며 그레이스 김(호주), 류위(중국)와 함께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갔으나, 아쉽게 우승을 놓쳤다. 이날 버디 4개와 보기 1개를 기록하며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간 성유진은 세 번째 샷이 크게 벗어난 데 이어 네 번째 샷까지 빗나가며 아쉬움을 삼켰다.

2라운드 공동 선두로 올라선 성유진은 3라운드에는 단독 1위로 올라서며 깜짝 우승 가능성을 높였다. 최종 라운드에선 류위에 역전을 허용했으나, 마지막 18번 홀(파4)에서 버디를 쳐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갔다.

연장전에서 버디를 성공하며 첫 LPGA 투어 우승에 성공한 그레이스 김은 호주 교포로 LPGA 2부 엡손 투어를 거쳐 올해 정규 투어에 데뷔한 첫 우승이다. 장대명 기자 dmjang@ 사진 AFP연합뉴스

머스크, ‘챗GPT 대항마’ 만든다  
네바다주에 ‘X.AI’ 스타트업 등록

일론 머스크(사진)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에 맞설 새로운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머스크 CEO는 AI 연구원과 엔지니어 팀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으며 해당 프로젝트를 놓고 테슬라, 스페이스X의 투자자들과 자신의 새 스타트업에 자금을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15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이 보도했다. 전날 이 소식을 최초로 보도한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머스크는 미국 네바다주에 지난달 9일 ‘X.AI’라는 회사를 등록했다.

머스크 CEO는 2015년 챗GPT 개발사 오픈AI 설립에 참여했지만, 3년 뒤 테슬라 AI 연구에 따른 이해 충돌 문제로 이 회사를 떠났다. 이후 오픈AI의 챗 GPT가 돌풍을 일으키자 안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며 챗GPT 등 생성형 AI 개발을 잠시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서신에 공동 서명하기도 했다. 변효선 기자 hsbun@

## 시진핑·룰라 “기후변화, 선진국에 역사적 책임”

베이징서 정상회담 공동성명  
“기후자금 선진국이 앞장서야”

중국과 브라질 정상이 베이징에서 기후 변화 관련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선진국의 책임을 강조했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 브라질 대통령의 전날 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양국이 14개 조항의 중국-브라질 기후변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성명에서 두 정상은 “기후변화는 우리 시대가 직면한 최대의 도전 중 하나이며, 이 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공평하고, 번영을 누리는 인류 문명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2009년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COP15)을 언급하며 “선진국이 제공하는 자금이 약속했던 연간 1000억 달러(약 130조7000억 원)에 지속해서 미치지 못하는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선진국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역사적 책임을 지고 2050년 이전에 기후중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오른쪽) 브라질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국빈 방문 환영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 브라질 대통령실

립을 실현하고, 기후행동 강화 및 기후자금 제공에 앞장서야 하며, 개발도상국의 발전권과 정책 공간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브라질 정상은 기후변화 분야 양자 협력을 확대하고 심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브라질-중국 고위급 조율·협력 위원회(COSBAN) 산하에 환경·기후 변화 분과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 부음

‘조선 입국 설계’ 김훈철 선박연구 초대 소장

1968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만 들어진 조선해양연구실 초대 실장을 맡아 조선업 발전의 밑거름을 그린 김훈철 전 한국선박연구소장이 16일 오전 1시 20분께 경기도 광주참조은병원에서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전했다. 향년 만 89세. 전북 남원에서 태어난 고인은 전주고, 서울대 조선공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미시간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1961~1967년 미시간대 전임강사·교수를 거쳐 1967년부터 미국 해군선박연구개발센터 조선기사로 일하다 1968년 해외유치과학자로 귀국, KIST에 조선해양연구실을 만들고 초대 실장으로 취임했다. 1979년에는 한국선박연구소(현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초대 소장을 맡았다.

유족으로 부인 박순함(한국외대 영어과 명예교수)씨와 2남1녀(김석진·김석규·김영) 등이 있다. 빈소는 용인 월낙원 경기장례식장 VIP 2호실에 마련됐고, 발인 18일 오전 9시 30분. 031-672-1009

▲허경덕 씨 별세, 손정순 씨 남편상, 허재영·준영(GS ventures 대표이사) 씨 부친상, 송미경·김숙 씨 시부상 = 16일, 부산 해운대백병원장례식장 VIP실, 발인 18일 오전 6시, 051-893-4444

▲김정자 씨 별세, 황주호(한국수력원자력 사장)·숙정·정호·문호·경호 씨 모친상 = 16일, 서울성모병원장례식장 31호실, 발인 18일 오전 8시 30분, 02-2258-5979

▲김호석 씨 별세, 조광도 씨 남편상, 김훈(SK바이오사이언스 글로벌 R&BD 대표)·창훈·정훈 씨 부친상, 이동원·김선주·이지현 씨 시부상 = 16일, 경남 진해 연세세브병원장례식장 연세1호실, 발인 18일 오전 6시 30분, 055-548-7759

이해인·차준환 등 피겨 대표팀  
ISU 단체전 팀 트로피 대회銀

피겨여왕 김연아를 보고 자란 ‘연아키즈’가 김연아도 봐보지 못한 국가대항전에서 일본을 넘고 2위에 오르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해인과 차준환을 앞세운 한국 피겨스케이팅 대표팀이 처음 출전한 국가대항전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트로피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대표팀은 15일(한국시간) 일본 도쿄 체육관에서 개최된 2023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 월드컵 트로피 대회에서 랭킹 포인트 95점으로 미국(120점)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우승 후보로 꼽혔던 3위 일본(94점)을 한 점 차로 꺾는 저력을 과시했다. 일본은 한국에 밀리면서 직전 대회에 이어 2연속 3위에 그쳤다.

ISU 월드컵 트로피 대회는 한 시즌 동안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한 6개국 참가하는 피겨스케이팅 단체전으로 매 2년 일본에서 개최되고 있다. 한국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단체전에 출전한 경험이 있지만 ISU 팀 트로피 대회 출전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대명 기자 dmjang@

### 인사

◆고용노동부 ◇국장급 임용 △정책기획관 이용욱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가천대 교수 전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AI의 임팩트가 얼마나 클 것인가도 관심거리다. 과연 MS의 컴퓨터 운영 체제 '윈도'와 애플의 '아이폰' 같은 임팩트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은 AI를 이들에 버금가는 신산업혁명이라고 평가하는 측과 괄목할 만한 신기술은 아니기 때문에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측으로 나뉘고 있다. 어쨌든 이런 기대와 논의를 지켜만 봐야 하는 한국의 현실은 안타까울 뿐이다. 한국의 AI 기술 수준이 너무 뒤쳐져 있기 때문이다.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마치 사람이 대답하는 듯한 문장을 생성할 수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AI)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다. 편의성과 생산성이 향상되는 반면 사고력을 떨어뜨리고 가짜 정보와 차별이 만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화형 AI는 질문을 입력하면 웹상에 존재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하고 답변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11월 미국 스타트업 오픈AI가 일반에 공개한 챗GPT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진화를 계속해 온 AI와 어떻게 공존해 인간 사회에 살릴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크게 일고 있다. 먼저 챗GPT 등 고도의 AI에 대한 우려를 짚을 수 있다. 일본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 저명한 기업가와 학자들은 개발 중단을 요구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사용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기도 했다.

무엇이 문제의 근저에 있는가. 전직 구글 직원으로 AI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경종을 울려온 메리디스 휘태커 전 뉴욕대학 연구교수는 챗GPT가 "매우

무책임하고 무모하다"고 강하게 비판한다. 윤리적인 면에서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세계에서 손에 꼽을 만한 기업만이 이러한 AI를 개발하고 제공할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립적이지도 않고 민주적이지도 않으며, 궁극적으로 그들의 이익으로 연결되도록 만들어져 있다고 그는 설명한다.

실제로 이러한 기업은 방대한 데이터와 클라우드 설비, 그리고 구글의 지메일 또는 메타의 페이스북을 통해 데이터를 계속 추출해 내는 거대한 소비자 시장을 갖고 있다. 지금 화제가 되는 AI는 이러한 자원과 관련 집중의 결과로 생겨난 것이기 기술 혁신의 성과가 아니다. 그러나 '인간보다 똑똑하다'는 과대선전이 아직 정확성과 안전성도 모른 채 실험적 기술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들 소수에 권력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는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을 이룬 시기에 확립했기 때문이다. 전문용어로 '감시 비즈니스 모델'이다. 지메일이나 페이스북에서 수집된 대량의 데이터가 2010년대 초반에 데이터센터에 집약되었다. 이런

대기업의 데이터가 지금의 AI로 이어지고 있다. 즉 AI는 감시 모델의 연장선상에 있다. AI가 기술적 도약이라기보다는 권한 집중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독점적인 거대 IT기업은 감시로 얻은 데이터를 광고로 수익화한다. 그 수익에 따라 높은 인프라 비용을 충당하고 데이터를 집약해 AI를 훈련한다. 이 구조는 지금까지와 다르지 않다.

한편 이 AI 자체가 독자적인 감시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기존과 같은 나의 위치 정보라든지, 좀 더 내면적인, 추론적인 형태로 '나'에 대해 밝혀낼 수 있다. AI와 감시 모델의 관계는 더 강해질 수 있다.

오픈AI에 출자한 마이크로소프트(MS)는 챗GPT를 검색 서비스 등으로 넓혀나가고 있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한층 보이지 않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메리디스 휘태커가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는 일부 대기업의 결정으로 생기는 문제를 우리 사회가 뒷정리해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경고한다.

반면 AI를 통해 부진에 빠진 세계 경기의 반전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만만치 않다. 수년째 급성장하며 글로벌 경제를 선도해온 미국 IT 대기업들이 지난해 말부터 경기 부진으로 대규모 감원에 나서고 있다. IT 대기업들이 새로운 반전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AI 바람이 불고 있다. 어디까지 성장 궤도를 되찾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지만 빅테크들은 일제히 AI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새로운 성장을 향한 투자 확대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최근 붐을 일으키고 있는 AI의 임팩트가 얼마나 클 것인가도 관심거리다. 과연 MS의 컴퓨터 운영 체제 '윈도'와 애플의 '아이폰' 같은 임팩트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은 AI를 이들에 버금가는 신산업혁명이라고 평가하는 측과 괄목할 만한 신기술은 아니기 때문에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측으로 나뉘고 있다.

어쨌든 이런 기대와 논의를 지켜만 봐야 하는 한국의 현실은 안타까울 뿐이다. 한국의 AI 기술 수준이 너무 뒤쳐져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술종축 시대가 오고 있는가.

논현로

김창호

인슈포럼 대표 전 국회입법조사관



이제 플랫폼과 경쟁해야 하는 보험 영업

의 주장을 제기하고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려는 목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8월 금융규제혁신회의 후 발표된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 운영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보험비교·추천서비스를 혁신 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예정된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이 보험설계사처럼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일반 소비자에게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 혁신금융서비스의 핵심이다.

현재 플랫폼 기업에 처음으로 개방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은 온라인상품 중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저축성보험(연금보험 제외), 단기보험(여행자·화재보험 등)으로 제한했다. 이들 상품은 비교적 보험상품이 통일되어 있어서 비교하기 쉽고 상품구조가 단순하며,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 등 기존 판매채널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플랫폼 기업의 업무 범위는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해 보험회사에 연결해주는 것으로 제한되며 이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역시 보험료에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도를 설정하였는데,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료 대비 4%대로 제한된다고 한다.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으로서 플랫폼 기업이 처음 취급하는 보험상품이 보험영업의 접점에서 가장 쉽게 소비자에게 접근이 가능한 미끼상품이자 핵심상품이어서, 자신들의 영역을 내주는 결과가 된다며 우려와 반대를 표명한다. 또한 수수료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대면채널인 보험설계사나 대리점이 보험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보다 저렴하다면, 동일한 보험상품을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가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가 플랫폼 기업의 보험비교·추천서비스로 몰리게 되어 자신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새로운 경쟁에 맞닥뜨린 보험설계사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은 고객 개개인에게 적합한 보험상품을 비교·분석해 알맞은 보험상품을 권유하고 보험전문가로서 소비자 중심의 영업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하나, 외형 성장에만 치우쳐 내부적으로는 다른 보험 판매채널에 비해 다소 높은 불안전판매율을 기록하는 등 질적 성

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보험영업에서 판매채널 간 경쟁은 끊임없이 지속되었는데, 예를 들면 보험사 전속과 비전속 보험설계사 간의 판매 경쟁을 비롯해, 전화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텔레마케팅 채널,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험사의 대리점으로 등록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채널, 방송 등을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홈쇼핑 채널 등에 이어서 이제는 플랫폼 기업과 보험상품 판매 경쟁에 나서야 하는 신세가 됐다.

따라서 보험설계사들은 보험전문가로서 본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히면서 고객에 적합한 보험상품을 권유하는 자신들만의 역량을 높이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물론 자동차보험 가입 시 4%대 수수료를 받는 새로운 보험판매 채널인 플랫폼 기업의 보험상품비교·추천서비스를 혁신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필자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러나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는 것보다 앱으로 택시를 호출하는 것이 익숙한 시대로 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보험설계사 역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자신의 보험상품 판매역량을 높이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신시아 오지크 명언 "자신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되길 희망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다."

미국 소설가다. 글쓰기는 선택이 아니라 '환각적 광기의 일종'이라고 한 그녀는 유대 미국인의 삶에 관해 소설과 수필을 썼지만 정치, 역사, 문학 비평도 썼다. 그녀의 대표 소설 '빛나는 세상의 계승자'는 높은 문학적 칭찬을 받았다. 오늘은 그녀의 생일. 1928~

☆ 고사성어 / 암중모색(暗中摸索)

'어둠 속에서 더듬어 찾는다'는 말. 어림짐작으로 무엇을 찾거나 알아낸다는 뜻이다. 원전은 수당가화(隨唐佳話). 당나라 학자 허경종(許敬宗)은 건망증이 심해 사람을 잘 기억하지 못했다. 한 친구가 그의 건망증을 꼬집으며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냐고 묻자 그가 한 대답에서 유래했다. "그대들과 같은 사람들의 얼굴이야 기억하기 어렵지만, 하손(何遜)·유효작(劉孝綽)·심약(沈約) 같은 문단의 대가들을 만난다면 어둠 속에서도 더듬어 찾아 기억할 수 있소[如暗中摸索可識也]."

☆ 시사상식 / 느린 재앙(Slow-rolling Crisis)

경제 위기가 한꺼번에 발생하지 않고 서서히 확산한다는 뜻으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가 지난달 미국의 실리컨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등 금융위기 상황을 진단하며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 우리말 유래 / 새끼

시 아유를 가리키던 '시 야기'가 변한 말. 시 야기는 어린 시동생이다. '새끼'(축약)로, '새끼'(된소리되기)로 소리가 변해 본래 뜻을 잃고 어린 동물이나 '놈'이란 뜻의 욕으로 쓰이고 있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자수첩

변효선 / 국제경제부



안보 강조하더니...체면 구긴 미국

다. 미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은 기업에 10년간 중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대하지 못하도록 요구한 것도 국가안보 때문이었다.

미국의 보조금으로 중국이 간접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이유였지만, 기업에는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이나 마찬가지로. 특히 중국에 이미 막대한 투자를 진행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동맹국 반도체 산업에까지 과도한 요구

를 하면서 강조했던 미국의 안보는 아이러니하게도 어느 20대 미국 말단 병사의 손에 손쉽게 무너졌다. 안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1급 기밀은 미군 계급에서 두 번째로 낮은 일병에 의해 유출됐다. 이로 인해 동맹국에 대한 도·감정 정황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민감한 군사 정보까지 고스란히 유출되면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대외적으로 국가안보를 그렇게나 강조하더니 사실 새는 바가지는 집 안에 있던 셈이다.

게다가 사병에 의한 미국 정부의 기밀 누출 파문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2010년에는 해군 상병이 돈을 받고 1·2급 비밀 서류를 팔아넘기려 했고, 그 이전에는 육군 일병이 국방부 전산망에서 기밀을 빼돌려 폭로 사이트에 넘겼다.

이번 기밀 유출로 인한 동맹국 도·감정 의혹 속에서도 미국은 안보란 단어를 꺼내 들었다. 미국 백악관 안보실 당국자는 정보 수집이 국가 안보를 위한 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가 안보의 핵심은 정보를 모으는 것보다는 지키는 데 있다. 수집했다면 관리나 할 말 일이다.

hsbyun@

## 稅수입 여건과 재정준칙

정부의 세수입 여건이 좋지 않다. 기재부의 국세수입현황에 따르면 1·2월 누계로 국세수입이 54조2000억 원에 머물렀다. 전년 대비 15조7000억 원이 감소한 것이다. 세수진도율은 2006년 이후 17년 만에 최저치라고 한다. 기재부는 자산시장 거래감소와 전반적인 경기위축으로 세수입이 부진하다고 설명하면서 2022년에 이루어진 세제개편의 감세 효과에 대하여는 말을 아끼고 있다.

문제는 3월 이후의 세수전망이 아니라 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무역수지가 연속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특히 수출대기업의 법인세 납부액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조선, 자동차, 이차전지 등 일부 업종의 실적은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다른 대부분 수출대기업의 실적이 악화되면 하청관계에 있는 기업이나 그렇지 않은 기업을 통틀어 전체적으로 다른 기업들의 실적도 같이 악화된다. 개인의 소득도 줄어들고 소비도 줄어서 소득세, 부가가치세의 납부액도 같이 줄어들 것이다. 낙수효과가 호경기에는 작동하지 않으나 경기침체기에는 잘 작동하는 것이 신기하다.

우리가 현재 경험하는 경기위축과 자산시장의 변화가 2022년 하반기에, 즉 2023년에 실행될 예산과 세제를 결정하는 시점에, 과연 예측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을까? 우리 경제의 2023년 성장률에 대한 예측은 전망기관들에서 소폭 하향 조정되고 있으나 그 폭은 크지 않다. 6개월 전에도 2023년의 경제전망을 좋게 예측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경기위축으로 세수가 상당폭 줄어들 것이라는 점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기재부는 세제개편에서 대폭 감세를 단행했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포용재정포럼 회장



#### 경기위축·감세에 국세수입 감소 정부지출, 경기변동 때 충격완화 재정건전성 장기 관점 접근해야

다. 현재의 세수부족은 정부가 언급하지 않지만 경기위축과 2022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감세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은 분명하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2023년 예산안에서 계획했던 지출 내역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2022년의 감세는 최근 수년간 G20 국가에서 이루어진 재정분야 정책 중 최악의 사례로 꼽히기에 손색이 없을 것이다. 향후 재정준칙을 도입한다면 아마도 그것과는 선두를 다룰만 할 것이다.

그렇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정준칙은 우리가 처한 경제상황과 매우 어긋난다. 정부 역할의 적극성과 유연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재정준칙을 통한 국가부채 수준의 제한은 스스로 손발을 묶는 행위다. 정부 스스로 경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예산의 65%를 상반기에 집행하겠다고 했다. 그것만으로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되면 좋겠지만 그럴 개연성은 매우 낮다. 하반기에는 어떤 것인가? 경기위축에 대응하고,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위기에서 힘든

국민들을 지원하고, 에너지공기기업의 누적적자를 해결해주어야 한다.

경제위축 시 정부지출확대는 경기변동의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위기 극복의 과정에서 세수가 확대되어 재정적자가 감소하며, 적자감소의 속도는 경제가 회복되는 속도에 따라 결정된다. 재정준칙으로 추구할 수 있는 것은 단기적인 재정건전성에 지나지 않으며 단기적인 재정건전성은 재정수지와 정부부채의 비율과 수치만을 중시한다. 그에 비하여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은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시각이다.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의 관점에서는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부채의 증가를 선택하는 것이다.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로 늘어난 부채는 성장률의 회복을 통하여, 이 과정에서 늘어나는 세수입을 통하여, 재원문제를 상당부분 스스로 해결한다. 재정지출은 일정 부분 자기조달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단기적인 재정건전화를 추구하기 위한 지출감축은 일정 부분 미래 세수입을 희생시킨다. 즉, 제 살을 깎아 먹는 것이다.

정부부채를 통한 지출확대는 단기적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킬뿐 아니라 지출분야와 시기가 잘 선택되는 경우 장기적인 성장률의 회복도 가능하게 해준다. 경제의 전환과정에서 국가만이 할 수 있는 혁신적 역할의 투자, 에너지전환의 경우 전환경로를 결정하고 국가가 먼저 인프라에 투자하여 민간의 행태를 환경친화적으로 유도하는 것, 산업의 전환이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하고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적자원의 형성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 바로 그런 것들이 정부의 역할이다.

### 사설

## 수출점유율, 정신 차리라는 경고로 알아야

대한민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는 통계가 어제 나왔다. 세계무역기구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취합한 통계가 이렇다. 지난해 전 세계 수출액은 24조9044억 8900만 달러이며, 한국 수출액(6835억8500만 달러)이 차지하는 비중은 2.74%였다고 한다. 2020년 2.90%에서 2021년 2.88%로 떨어졌다가 또 뒷걸음친 결과다.

우리나라의 세계 점유율은 2010년 처음 3%대에 올라섰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연속 3%대를 유지했다. 2017년에는 3.23%로 최고치를 찍었다. 그러던 점유율이 2019년 2.85%로 내려왔더니 4년 연속 2%대를 맴돈 것이다. 지난해 점유율은 금융위기 때인 2008년(2.61%) 이후 14년 만에 최저치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수출 점유율이 0.1%포인트 하락하면 약 14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부정적 영향이 나타난다. 3%대 점유율이 2.74%까지 빠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증발했는지 모를 일이다.

수출 하락세는 코로나 팬데믹(대유행)과 무관치 않다. 하지만 미중 탈동조화,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주의 등의 바람이 거세지는 글로벌 기류 또한 크게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다. 여러 조짐은 심상치 않다. 미국은 지난해 8월 반도체지원법·인플레

이션감축법을 발효했고, 유럽도 3월 핵심원자재법 초안을 발표했다. 중국과 러시아 등도 밀착하고 있다. 세계 경제가 블록화하고 있는 것이다. 무역 강소국에 유리한 기류 변화가 아니다. 수출 버팀목인 대중 무역과 반도체 또한 더 이상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다. 오히려 사면초가 형국이 아닌지 걱정할 판국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자국 중심주의 산업정책으로 인해 세계교역 단절이 심화할 경우 글로벌 경제성장률(GDP)이 2%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IMF의 세계 GDP 전망치가 올해 2.8%, 내년 3.0%라는 점에서 1%포인트가량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 셈이다. 한국은행도 어제 자국중심주의 산업정책이 반도체·이차전지·전기차에 집중되고 있다며 국내외 투자환경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 우려했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4월 최근 경제동향'에서 수출·설비투자 부진 등을 이유로 석달 연속 경기둔화를 공식화했다. 마법사 주문처럼 '상저하고'만 외칠 때가 아니다.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다들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수출 종목·지역 다변화도 화급한 과제다. 무수한 일자리가 수출 점유율에 좌우된다는 사실만 명심해도 힘을 모으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 마감 후

#### 김준형

산업부 부장대우



## 서울모빌리티쇼 복기(復棋)

야 한다는 처연함도 엿볼 수 있었지요.

한때는 국산차와 수입차가 서로 힘을 과시하며 충돌하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국산차와 수입차가 각각의 모터쇼를 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국산차와 수입차가 한 곳에 모여 모터쇼를 개최하는 것 자체가 한때는 행사의 관건이 되기도 했던 것이지요. 그 뿐인가요. 모터쇼가 끝나면 주요 언론사들이 앞다투어 '모터는 없었고 쇼만 남았다'라는 보도를 쏟아내고는 했습니다. 신차를 찾아보기 어렵고, 자동차 대신 모델이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과감한 노출의상을 입은 모델이 차 앞을 가로막는 일이 사라진 것도 행사에 대한 이런 '복기' 효과 가운데 하나지요.

올해 행사를 복기하다 보니 '몇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느냐'도 관건으로 떠오릅니다. 2023 서울모빌리티쇼 조직위는 행사를 마친 뒤 "열흘 동안 51만 명이 행사장에 다녀갔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실일까요. 이번 행사는 경기도 고양에 자리한 킨텍스 1전시장에서 열렸습니다. 관람객이 입장하는 입구는 두 곳 뿐이었지요. 계산기를 두들겨보면 51만 명이 다녀갔다는 발표는 의문투성이입니다. 먼저 입구에서 관람객의 입장권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과정을 따져봤습니다. 1초에 관람객 1명씩 씩 없이 입장했다고 가정해 보니 의문은 더 커집니다. 1

분에 60명, 10분에 600명, 한 시간이면 3600명이 입장할 수 있습니다. 전시장 입구가 2곳이니 1시간이면 모두 7200여 명이 입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오전 10시에 문을 열어 입구를 7시간(주말은 8시간) 열었으니 하루 5만 명 관람객을 겨우 채우게 됩니다. 조직위는 행사 기간(10일) 51만 명이 다녀갔다고 했는데요. 행사 기간 1초에 한 명씩 관람객이 쉬지 않고 줄지어 입장해도 폐막 때까지 채우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한가했던 행사장 입구를 떠올려보면 조직위가 강조한 "누적 관람객 51만 명"이라는 발표에는 의문만 가득해집니다.

#### 관람객 수가 행사 성공 담보하진 않아

물론 그들의 의지는 이해가 됩니다. 이웃나라 일본이 오는 10월 재팬모빌리티쇼를 준비 중인데, 관람객 100만 명을 예상 중입니다. 주요 제조사는 한국보다 중국 모터쇼(오토 차이나)에 관심을 더 두고 있습니다. 글로벌 5위권 자동차 생산 강국을 강조하면서도 중국과 일본에 모빌리티쇼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노력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다만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누적 관람객 숫자가 결코 행사의 성공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진짜로 51만 명이 입장했다면 그에 따른 근거와 80억 원에 가까운 입장권 수익, 나아가 용처까지 밝히시던가요. junior@

### 특허, 특허! 퀄컴의 표준특허 기반 권리남용 과징금

한국 대법원이 이번에는 미국 법원의 판단과 다른 판결을 내렸다. 일본 재판소가 내린 강제징용에 대한 판단과 배치되는 판결만큼이나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대법원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의 이동통신용 모뎀칩셋 및 특허 라이선스 사업자인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약 1조 원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이는 퀄컴의 특허정책이 미국의 독점금지법에 위반된다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주장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이 인정했던 판결을 파기한 2020년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판단과 어긋난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기를 포기해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한국과 미국에서 다투어진 퀄컴의 공정거래위반 또는 독점금지위반 행위의 핵심은 모뎀칩셋 제조 경쟁사에 대한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s)의 라이선스 제한과 휴대폰 제조사에 표준필수특허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제공해야(FRAND 확약) 하는 라이선스를 우회하는 부당한 계약체결의 강제

였다. 구체적으로 퀄컴은 경쟁 반도체회사에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를 거절하거나 제한했고, 삼성이나 애플 등 스마트폰 업체에 모뎀칩셋 공급을 조건으로 부당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표준특허는 기술표준을 추구하는 국제표준화기구(ISO) 등이 제시하는 표준문서의 규격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특허이다. 국제표준이 제정되기 이전에 출원된 특허 중에서 선택된 것이기 때문에, 해당 특허의 독점배타권은 일정 정도 제한받게 된다. 기술표준은 해당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현되어야 하므로, 모든 사업자에게 그 기술의 사용을 강제하는 형식이 되어서 경쟁업체가 실시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다. 여기서 특허권의 특정한 독점과 표준의 핵심인 개방을 조화시킨 'FRAND 선언'이 제도화되었다. FRAND 선언을 준수하지 않은 표준특허권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되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를 확인했다. 미국에서 어떤 판단을 했든 우리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징수하면 된다. 문헌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쇄인 김상우	편집인 김덕현	주필 이승현	편집국장 박성호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주소 우편번호 06044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68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만5000원 1부 800원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AI to [ 동물의료 X Caliber ]

반려동물 천만 가구 시대

말 못 하는 강아지의 아픔까지  
정확하게 전해주는 AI가 있다면 어떨까요?

어디가 불편한지, 어디가 아픈지  
반려동물의 엑스레이 사진을 분석해  
수의사의 진료를 돕는  
AI 기반 동물 진단 서비스 엑스칼리버(X Caliber)



## SKT의 AI는 어디에나 있다



엑스칼리버가  
함께하는  
AI 동물병원

OPEN HOUR  
9:00am - 8:00pm  
수요일 휴무

AI to Everywhere  
SK telecom

SKT의 독보적인 AI 기술로 만든 동물 진단 보조 솔루션, 엑스칼리버(X Caliber)